

진지정신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인 디아스포라로 하여금 미주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전파에 충성 헌신하는 모든 한인 기독교인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5월 30일 (토) 제 153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날” 온다!

CT, 보코하람 · IS가 여성겨냥 이유와 기독교 인이 기도해야 할 내용 소개

역사적으로 여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쪽의 전리품에 포함됐다. 구약성경에도 그러한 대목이 있다. 민수기 31장에서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처녀만을 취하라는 말씀이다. 21세기 오늘 지구촌에서 새로운 악의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IS와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납치나 전투에서 승리한 경우,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는 반면에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강제 결혼까지 시키고 있다.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의 보코하람은 이슬람 칼리프 국가 수립을 목표로 나이지리아에서 수년간 납치와 테러를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 없이 일찍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학생 납치를 일삼고 있다. 바로 여기에 무서운 음모가 담겨 있다. 이슬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코란을 전하기보다는 새로운 신자를 만드는 게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따라서 보코하람이나 IS는 납치나 전리품으로 납치된 여자들은 이슬람으로 먼저 개종시킨 다음, 강제로 강간이나 결혼을 시행하여 무슬림 가정을 이루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적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빼앗고 무슬림으로 만들어 이슬람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서운 정도로 치밀한 전략을 고발한다(Why Boko Haram and ISIS Target Women).

민수기 31장...소녀 납치...강간...임신...이슬람 전파수단

뉴욕타임스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이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11살 정도부터 납치하여 강간과 성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보코하람이 작년년부터 주로 크리스천 학교들에 다니는 300명 정도의 여학생들을 납치해 이 같은 만행을 일삼아, 나이지리아에서는 "우리 딸을 돌려 달라(BringBackOurGirls)"는 캠페인이 시작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 소녀들이 강간범의 아이들을 임신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정부나 UN에 보코하람의

만행을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공분을 얻어, 납치된 소녀들의 조기 귀환을 서두르고 있다.

중동에서 엄청난 속도로 테러를 확산시키고 있는 IS 역시 여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유명 기독교 작가인 보스캠프(Ann Voskamp)는 최근 IS를 피해 도망간 이라크 사람들이 임시로 살고 있는 수용소를 방문했다. 놀라게도 그 곳에는 5-7세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많이 가족과 같이 있었고, 9살 이상의 소녀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스캠프는 "IS는 9살짜리 소녀들을 노예 중계상들에게 판다.

(4면으로 계속)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 5월 19-22일 브라질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제39회 총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에스겔 47:9)"라는 주제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이과수공항 호텔에서 열렸다. 총회는 총대 160명과 가족과 봉사자 등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째 날 19일 오후 7시 개회예배는 정관일 목사(총회장) 인도로, 기도 이영상 목사(뉴욕노회), 성경봉독 김대업 목사(뉴잉글랜드노회),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김영수 목사(부총회장), 광고 최동진 목사(서기), 축도 전성덕 목사(가미노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관일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이 1년 동안 총회장을 하면서 실수도 많았고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안도 있어 죄송하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같이 일하다 보니 부총회장님이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이 있다. 새 임원들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는 이번 총회의 주제가 담긴 에스겔서 47:1-12를 본문으로 "은혜의 강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하경남 목사(브라질노회)의 집례로 진행됐다. 조성희 목사(뉴욕남노회)의 기도와 전대구 목사(태평양노회)의 성경봉독 후 하경남 목사는 고린도전서 11:23-26을 본문으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오후 8시30분부터 진행된 회무는 회원호명 서기, 개회선언 총회장, 환영사 황익상 목사(중남미노회), 절차보고 서기, 고시부 보고, 임원선거, 신규임원교체, 휘장분배, 취임인사 신임 총회장, 광고 출석위원선정, 회록채택 회록서기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39회 총회 신임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가 지난 19일부터 4박5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됐다.



총회장에 김영수 목사



부총회장 고택원 목사

다. △총회장 김영수 목사(중남미노회) △부총회장 고택원 목사(필라노회) △서기 조영철 목사(가주노회) △부서기 김성일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 △회록서기 홍귀표 목사(중부노회) △부회록서기 이기훈 목사(위싱턴노회) △회계 민재기 장로(뉴욕남노회) △부회계 전성호 장로(뉴욕노회) △총무 공재남 목사.

신임 총회장 김영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첫째,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 둘째, 총회가 개혁돼야 한다. 개혁보다 혁명이 훨씬 더 쉬운데 개혁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 셋째, 개혁하고 동시에 화합을 추구해서 더 성숙한 총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 보겠다. 넷째, 세계선교에 큰 비전을 가진 교단으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 다섯째, 조국과 조국의 교회들과 조국 통일을 위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총회로 이끌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했다. 둘째 날은 새벽기도회로 시작했다. 기도회는 사회 송영인 목사(캐나다노회), 기도권혁천 목사(북가주서노회), 성경봉독 장현철 목사(가미노회), 설교 박만수 목사(개혁총회 전 총무), 축도 강기봉 목사(뉴욕서노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무는 공천부 보고, 상비부보고, 상비부 조직보고, 서기 보고(현의, 고소, 질의문서), 총무보고, 현의부 보고, 친선사절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브라질 이과수 국립공원과 이과수폭포 관광이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 개설”

원격교육의 특징

1. 학사(BABS/BACC), 석사(MAT/M.Div/MACC) 정규학위 취득
2.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 학점인정 및 편·입학
3. 목회학 석사과정 이수 후 미군 군목 장교로 지원
4. 안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 인준기관

ABHE, ABHE, ATS, TRACS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855



2면
잘 만든 캠페인 송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가공할만한 미래, 2025년!



16면
인터뷰
신임 총회장 김종훈 목사

이 단 대 책 세 미 나



- 주제: 이단대책세미나 (신천 '추수꾼' 예방, 색출대책세미나)
- 일시: 2015년 6월 15일 오후 5:30-9:00 (식사제공)
- 장소: 풀러신학교 페이톤 홀 (Payton Hall) 301호
(주차180 N Madison Ave., Pasadena 91101)
- 주관: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 문의: 626-584-5574

강사소개: 진용식 소장

- 안산 상록교회(합동)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시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가정이 산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6.25동란은 한국에서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이 생기게 해주었다. 유명한 월드비전이 바로 그중의 한 단체이다. 월드비전은 지금 전 세계 103개 나라에서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예수님을 위한 열정으로, 또한 기아와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밥 피어스 목사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1952년에 창설하였다. 피어스 목사는 한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갔다. 그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명 깊은 기도를 하곤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내 마음도 울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불태우게 하소서!" 이러한 그에게 사람들은 무수한 찬사를 쏟아놓았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세상의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조차 내놓은 사람" "진정으로 동정심이 깊은 사람."

그러나 그의 이런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다. 그의 아내 로레인 피어스가 "우리 가정은 남편이 돕는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빈곤을 체험해야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가 자신의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버려둔 채 일만 쫓아다녔던 것이다. 한 예로, 딸이 자살 직전에 해외에 출장 중이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어서 집에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흐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는 반드시 극동지역에 있지 않아도 되었고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 외면당한 딸은 자신의 아빠가 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고백하였고 수년 뒤에 결국 자살에 성공하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있는 뒤에도 나머지 자녀들과 아내와의 관계도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졌고 그들은 서로 몇 년 동안 서로 말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64세 그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였다. 위대한, 기적적인,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의 보호자로서의 엄청난 사역을 이룬 밥 피어스 목사는 사역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의 마음과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그는 자신이 설립한 월드비전 이사회에서도 퇴출당하였고 백혈병으로 외롭게 죽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소위 신수성가(神手成家/God-made man)한 사람의 대명사이다.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던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으니 그는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으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클라이맥스에 다다른다. 그래서 그는 춤추고 뛰놀다가 속살이 보일 지경인데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 다윗의 가정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공식적인 아내만 8명을 둔 것도 그렇지만 그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다윗을 향해 가시 돌린 비난을 퍼붓는 모습만 보더라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런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게 하심으로 다윗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던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다윗 역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갈은 신앙이 거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부모 밑에서 왕궁의 공주로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미갈은 다윗의 신앙보다는 그의 탁월한 무용과 예술적 감각에 반하여 사랑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계가 들어올 때도 백성들과 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궁전에서 창으로 내려다보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명목상의 신자, 무늬만 신자, 육신에 속한 신자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나니"(고전 7:14)라고 하면서 먼저 신앙을 가진 남편을 통해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되게 할 것을 권면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불신 남편을 말로가 아닌 순종하는 행실로 전도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보건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줌으로 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신앙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부생활의 원리다. 그러므로 신앙 깊은 남편 다윗이 믿음이 모자란 아내 미갈을 향해 처가의 문제점까지 들추면서까지 뼈아픈 상처를 찌르기보다 자기를 모질게 비난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러했듯이 관대하게, 너그럽게 말했다면, 그래서 미갈의 미성숙한 마음에 다윗의 성숙한 마음이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을까, 가정의 달을 떠나보내면서 돌이켜본다.

잘 만든 캠페인 송 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뉴스위크, '2016대선에 등장할 '쇼비즈니스' 전통과 '예능' 활용 소개

일반적으로, 대선후보의 1단계 홍보 전략은 슬로건이다. 슬로건이란 해당 후보의 삶, 가치, 정책 등을 한마디로 응축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슬로건이란 단 한 줄의 '카피(copy)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슬로건은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정치홍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슬로건을 만들기 전에 후보들은 공략 대상으로 삼을 주타깃(목표)을 설정한다. 주타깃은 국민 전체일 수도 있고, 나이 든 세대나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중산층일 수도 있다. 주타깃이 설정되면 여론 조사 또는 FGI(표적 집단면접법)를 통해 주타깃의 특성을 분석한다. 조사를 통해 주 타깃의 주요 특성을 10여개 정도 찾아낸다. 이것을 갖고 전문 카피라이터가 몇 개의 슬로건이나 캠페인 송을 만든다. 후보는 이렇게 만들어진 슬로건들이나 캠페인 송들 중 한 개를 최종 선택한다.

미국 대선에서 이처럼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고도의 정치 산물인 예능 즉 캠페인송이 등장한 것은 바로 미국에서 유일무이하게 4선에 성공한 F. D. 루즈벨트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대선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은 오바마다.

퍼듀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브라운넬(KATHRYN CRAMER BROWNELL) 교수는 미국 선거에서 쇼비즈니스가 어떻게 접목돼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에 대한 전문가다. 그녀는 최근 뉴스위크를 통해 예능 즉 캠페인 송을 통해 백악관에 입성하고 통치에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기고문을 통해, 선거는 쇼비즈니스라고 말한다(Songs That Lead to the White House).

서 유명한 배우 겸 가수 주디 갈랜드는 라디오를 통해 "난 1944년 선거에서 우리 현직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요"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음악이 루스벨트 선거운동의 중심은 아니었다. 미국 전역의 유권자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 뉴딜정책 홍보의 보완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60년 위스콘신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허버트 험프리 상원의원(미네소타주)과 존 F.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맞붙은 경선이었다.

두 후보는 메시지, 개성, 정치 스타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험프리는 예능을 정당 문제와 연결시키는 민주당 전통을 따랐다. 반면 케네디는 민주당의 권력구조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예능을 활용했다.

험프리는 전통을 따르면서 노조와 농민으로 구성된 민주당 지지기반의 환심을 사려 했다. 그와 함께 위스콘신주를 누빈 전미교무노동조합의 교육 담당국장이 직접 기타를 치고 포크송을 부르며 농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 험프리는 유세 연설 후 자신이 잘 아는 농사비용과 노조 정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권자들

2016년 미국 대선을 향한 경주가 막을 올렸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미국에선 화려한 선거용 예능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으려는 후보는 거의 모두 '쇼비즈니스 정치'의 전통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다.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심야 TV쇼든 뮤직비디오든 대중문화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를 더 잘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선거운동에선 메시지를 전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유용한 도구가 음악이다. 캠페인 송은 후보자가 자신의 스타성을 각



군중사령관만 아니라 오락총사령관 역할도 대통령 직무 중 하나 F. D. 루즈벨트 시작, 존 F. 케네디 적극 활용, 오바마는 국정운영까지

인시키고, 경우에 따라선 개성 강한 이단아로서 소속당의 오랜 전통에 도전할 기회도 제공한다. 공화당 경선후보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은 헤비메탈 음악을 활용해 공화당의 개혁과 부흥이라는 메시지 홍보에 나섰다.

민주당 경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가수 케이티 페리가 트위터를 통해 그의 캠페인 송을 만들겠다고 자원했다. 그 화답으로 클린턴은 여권을 주제로 삼은 페리의 히트송 'Roar(포로)'를 격찬했다.

캠페인 송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정치적 도구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진화했다. 그 역사는 정당과 도시 중심의 조직, 후원단체가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후보를 대중 스타로 판촉하려는 정치 컨설턴트와 광고 전문가가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미국 정치의 폭넓은 변화를 반영한다.

19세기 들어 미국의 정당 시스템이 확대되고 공식화되면서 선거운동에서 음악의 역할도 더 커졌다. 당시엔 지역의 정당 지도자가 현지 주민의 취향에 맞게 가사와 멜로디를 선정했다. 지역 당원들은 그런 노래를 통해 주민에게 당의 노선과 후보를 홍보했다. 대개 후보는 직접 유세에 나서지 않았다. 독자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유권자에게 당을 알리는 간판 얼굴이었다. 유권자도 개인 후보가 아니라 당을 보고 표를 찍었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대선후보는 자신을 내세우며 직접 유세에 나서기 시작했다. 물론 표를 얻기 위해 당 조직에 계속 의지했지만 자신의 언변과 홍보기술을 적극 발휘해 유권자에게 개인적인 장점을 알렸다. 아울러 라디오와 TV의 등장으로 후보는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자신의 역동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활용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집결시켰다. 그 지지기반이 '뉴딜연합(New Deal coalition)'이었다. 1944년 루즈벨트의 4선 운동에

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표밭을 갈았다.

반면 케네디는 민주당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이 '미디어 스타'라는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대선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대 표) (323) 665-9025(광고국) Fax: (323) 665-0056(편집국) (323) 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대 표) (718) 886-4424(편집국) Fax: (718) 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29th Anniversary Midwest University

1986-2015. 개교 29주년

기념특강 및 학위 수여식 June 8-12, 2015



설립자, 총장
Dr. James Song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경영학, 음악, 상담학, 교육학, 신학, 영어교육, 리더십



Take the Challenge
The intelligent choice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

(1면에서 계속)

친선사절단으로 브라질장로교회 총회 조아레스 목사(브리지바 장로교회, 총회총무)가 총회장 로베르토 실바 목사를 대신해 인사했다. 또 예장 합신측 총회 총회장 우중후 목사, 서기 이래원 목사, 총무 박혁 목사가 인사했다. 또 예장 개혁측 총회 전총무 박만수 목사가 GMS 측 부이사장 박재신 목사, 선교총무 김호동 목사, 기독교신문 이사장 민찬기 목사가 인사했다.

저녁예배는 전통진 목사(필라노회) 인도로, 기도 신효철 목사(중부노회), 성경봉독 최우성 목사(수도노회), 설교 우중후 목사(합신 총회장), 축도 문성록 목사(펜실바니아노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중후 목사는 시편133:1-3을 본문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셋째 날 새벽기도회는 허성무 목사(위성톤노회) 인도로, 기도 김현인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 성경봉독 김상하 목사(펜실바니아노회), 설교 김성국 목사(뉴욕노회), 축도 엄영민 목사(남가주노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예레미야 29:11-13을 본문으로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미진한 회무들이 진행됐으며, 사모들은 총회준비위원회의 인도로 조류공원과 수력발전소 등을 관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사부의 보고를 받아들여 분쟁 중이던 든든한교회와 뉴욕서노회의 안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결정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든든한교회 김상근 목사는 자진 사임한다. 2)든든한교회는

김상근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하는 교회개혁 후원금으로 30만 달러를 지원한다. 3)노회 정상화와 김상근 목사의 교회개혁을 위해 수습위원으로 3인(김선만, 조성희, 손한권 목사)을 파송한다. 4)쌍방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회 법사, 총무 박혁 목사가 인사했다.

또 예장 개혁측 총회 전총무 박만수 목사가 GMS 측 부이사장 박재신 목사, 선교총무 김호동 목사, 기독교신문 이사장 민찬기 목사가 인사했다.



KAPC 제39회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임원단

자들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총회 지역 개혁장로회신학교를 되찾아 오는 일에 대해서 해당 이사회의 소송비용 부담 하에 이사회에서 허락했으며, 미주총신신학교에서 평양노회에서 정원한 필리핀장로회 신학교의 총회 인준신학교를 허락했으며, 미주총신신학교에서 정원한 총회 인준신학교의 건은 현장실사가 필요하므로 부장과 서기를 파송하기로 했다. GMS 세계선교회(합동) 부이사장 박재신 목사와 기독교신문 이사장 민찬기 목사가 친선사절로 인사했다.

저녁에는 KAPC 세계선교회(WMS) 선교사대회가 열렸다. 개회예배는 이용걸 목사(선교회 회장) 사회로, 기도 김선만 목사(선교회 회계), 설교 김재호 목사(GMS 이사장), 파송선교사 소개 최해근 목사(선교회 총무), 격려사 박재신 목사(GMS 부이사장), 선교헌금, 봉헌기도 정금태 선교사, 축도 김영수 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넷째 날 오전에는 폐회예배가 있었다. 김영수 총회장은 2016년

5월 17일(화) 40회 총회에서 만나자며 폐회 선언을 했으며, 총회장의 인도로 설교와 축도가 진행됐다.

한편 WMS 선교사대회는 총회 후 계속돼 23일까지 진행됐다.

22일에는 김호동 목사(GMS 선교총무), 백운영 목사(GP 선교회계), 김선만 목사(WMS 회계)가 전체 세미나를 인도했다. 또 WMS 파송선교사인 정금태, 박성홍, 황신재, 강성철 선교사의 선교보고와 간증이 진행됐다. 22일 오전 11시에는 한국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GMS)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WMS)가 선교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복음

화를 위한 선교사역의 극대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선교협정서에 GMS 이사장 김재호 목사와 WMS 회장 이용걸 목사가 사인했다. 협정서에는 △세계선교를 위해 동역 △매 4년마다 갱신 △상호 사역원칙과 내규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예장합동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정치적으로는 냉전을 치루고 있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함으로 한국 선교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또 WMS 파송선교사인 정금태, 박성홍, 황신재, 강성철 선교사의 선교보고와 간증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이과수목포에서 전체 선교사 위로회가 진행됐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산하 650여 교회, 세례교인 5만3천여명, 유아세례 교인 1만여명으로서 북미주 최대의 한인교단이자 최대 한인 디아스포라 장로교단이다. 또한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30여개 나라에 107가정씩 사역하고 있으며, 군복도 24명이다. 창립 총회원 32명으로 시작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현재 목사회원만 1천2백여명에 이른다.

또 5개의 노회로 출발해 현재 32개 노회로 발전했다. 남가주 5개 노회, 북가주 3개 노회, 미동부 지역에 9개 노회, 중부노회, 동남부노회, 남부노회, 그리고 하와이 노회 등 미국 전역에 20개 노회가 있다. 그 외 캐나다노회, 남미지역의 브라질노회와 중남미노회, 오세아니아지역의 뉴질랜드노회가 있으며, 제33회 총회에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노회가 가입됐다. 또 무지역 노회로 영어를 사용하는 북미주(영어)노회가 소속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22편: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라

시편 122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함을 나타내며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볼 줄 알면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세미하고 풍부한 사랑, 들리지 않는 큰 소리, 볼 수 없는 확실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곧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만 보는 것은 그림자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여호와와 집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과거의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 속에 살면서 부모의 사랑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불평할 것만 생각하는 철없음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무사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사랑이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약기는 그 연주자의 숨쉬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연주되는 약기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가 나오고 믿음과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읊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욘19:26, 27)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육체를 떠나서 아버지를 뵈는 그 날을 사모할 것입니다.

화성을 향해 쏘아올린 우주선이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을 보아도 신기하고 좋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많은 별들, 태양의 반사체로서 빛이 나는 수많은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좌를 두고 계시고, 영원 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그 곳에 살도록 예비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3)고 하셨습니다. 그 곳은 이 세상 태양 빛으로의 광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셨던 천국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곳에는 죄가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신 하늘 그 곳으로부터, 땅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땅에서 찬양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습관이 중요하합니다. 걱정하며 인생을 사는 것보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이란대,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아버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잘 만든 캠페인 송 하나, 열 정책 안 부럽다!

(2면에서 계속)

인기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히트송 'High Hopes(대망)' 가사를 적절하게 개작하고 할리우드를 첨단 홍보전술을 동원해 '난 잭 케네디 팬'이라는 유권자 블록을 구축했다.

케네디의 전술이 먹혀들었다. 유세장에선 '난 잭 케네디 팬'을 자처하는 대규모 군중이 케네디 일행의 도착을 기다렸다. 말 그대로 스타 탄생이었다. 케네디 일행은 대형 스테이션왜건(접거나 펠 수 있는 좌석이 있고 뒷문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을 타고 지붕에 매단 대형 스피커 2대에서 'High Hopes' 노래를 틀며 떠돌며 유세장에 도착했다. 그가 사는 이랬다. "모두가 잭에게 투표하지. 다른 후보에게 없는 걸 그는 가졌어. 모두가 잭을 지지하

고파. 잭은 정도를 걷지. 그는 포부가 커. 1960년은 그의 대망을 위한 해야. 모두 나와 케네디를 찍어. 케네디를 찍어. 우리가 이길 거야."

시나트라 노래는 케네디의 선거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 아니라 전국의 유권자가 그에 지지할 수 있는 공통 언어로 자리 잡았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광부와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풀란트계 미국인 등이 모두 그 노래를 부르며 케네디를 환영했다. 유세장에 참석할 수 없는 팬들은 케네디 선거운동본부에 1달러를 보내면 케네디가 직접 서명한 음반을 받을 수 있었다.

시나트라 노래는 인기 스타 케네디와 유권자 사이의 정서적 연결고리가 됐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무당파든 상관없었

다. 케네디는 미국 선거정치 오랜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전술로 결국 선거에서 이겼다. 스타 마케팅에 뿌리를 둔 선거운동의 효과를 입증한 사례였다. 오늘날 선거운동에서 대중음악을 활용하는 방식은 전부 그 유산에서 비롯됐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출마에선 록밴드 플리트우드 맥이 재결합해 그를 위해 'Don't Stop(멈추지 마)'를 불렀다. 클린턴은 이 흘러간 노래를 이용해 미래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케네디가 'High Hopes'를 활용해 재미를 봤듯이 클린턴도 'Don't Stop'을 통해 멋과 흥을 즐기는 미디어 스타로서 표심을 사로잡았다.

버락 오바마는 벤 하퍼의 'Better Way(더 나은 길)'부터 스티비 원더의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서명하고 봉해서 배달했어) 난 당신을 찍었어)'까지 연예인의 지지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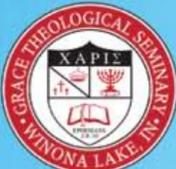
세에서 음악적 메시지로 전환시켰다.

예능은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에도 도움이 됐다. 그는 버즈피드(Buzzfeed) 같은 뉴스·연예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콜베어 르포(Colbert Report)' 같은 코미디쇼에서 너스레를 떨며 이민과 건강보험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했다.

2016 대선을 위한 양당의 예비선거에서도 선거용 예능물이 유권자의 정서와 관심사, 애착을 자극할 것이다. 거기서 형성되는 '팬 기반'이 잘만 하면 본선에서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결국 요즘은 '군총사령관(Commander-in-Chief)'만이 아니라 '오락총사령관(entertainer-in-chief)' 역할도 대통령의 직무 중 하나다. 선거운동에서 대중문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나중에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말! 조심합시다!

어느 시장 한 가운데서 어느 분이 확성기를 들고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낮 12시에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지위도 얻고 돈도 얻고 사람도 얻는 출세하는 지혜를 팔겠다고 소리를 쳤다. 12시가 가까워 오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12시 정시에 그 사람은 거기 모인 사람들로 부터 상당한 돈을 그것도 선불로 다 거두어 들었다. 그리고는 딱 말 한마디를 남기곤 유유히 사라졌다.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말조심 해!" 생각해 보면 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민수기14:28에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한 말씀이 나온다.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하

신 맹세이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에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었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결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37절에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해주신다! 우리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잠언 18:21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고 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말했다. 세상

적인 눈으로 보면,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사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망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 보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신 것이다. 보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갈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을 밥으로 먹고 살았다. 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하는 습성!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한다.

믿음 없는 생각이 내 머리에 잠시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생각을 입으로 말해버리면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여리고를 돌때 절대명령 한 가지

가 있었다. 모든 백성은 침묵하면서 돌라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불신 불평 의심의 말을 못하게 한 것이다. 다행이 침묵하려고 한 사람도 불신앙의 말을 내 뱉지 않았고 그래서 여리고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만약 "이거 뭐하는 것이야. 성벽을 7바퀴 돈다고 뭐 이 큰 돌로 쌓은 성이 무너지냐?" 이런 불신의 말을 누군가 뱉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침묵하라는 명령대로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말조차 하지 않았다. 천만 다행이었다. 그래서 성곽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의 오늘을 5년 전, 10년 전에 심었던 말의 열매이다. 그동안 좋은 말을 심었으면 앞으로 좋은 날을 맞이하며 살 것이다. 행만 보고 나쁘게 말하는 습성!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기에 오늘 행복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미국 사업가 중에 여자의 속옷을 팔아 부자가 된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다. 미국 여성들의 체격이 커지면서 small, medium, large 같은 기존의 사이즈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스틴은 체격이 큰 여

성들의 속옷을 만들어 '뽕보형'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그 속옷은 도무지 팔리지 않았다. 오스틴은 고심 끝에 '뽕보형'이란 말을 여왕이 입는 치수를 뜻하는 queen size라는 말로 바꾸었다. 그때부터 그 속옷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이런 오스틴의 성공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실패의 언어가 있다. 행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고 불행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준 말이 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인생 최대 에너지이다. 마치 태양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로 사람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그 권세를 작동시켜 기적을 날게 하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비의 언어가 있고 우리가 가진 권세를 능력으로 나타내는 말들이 있다.

주변을 살펴보자. 절망적인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희망적인 삶을 사

는 이들이 있는지 보라. 말이 거친 사람 중에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보라. 언제나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중에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 중에 긍정적인 삶은 사는 이가 있는지.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 중에 칭찬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는지.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지.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존경 받고 사는 이가 있는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 없다. 눈을 찢고 다시 봐도 없다. 왜?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라. 귀는 두 개나 만들어 양 옆에 붙여 주시면서도 항상 열려놓으셨다. 그런데 말하는 입은 하나만 주셨고 그것도 이중으로 벽을 쳐놓았다. 말하는 혀를 이빨로 단단하게 성곽을 쌓아 막아놓고 그리고 또 입술을 또 그 위에 덮어 놓았다. 세상 살면서 사람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작품인 것이다. 말! 조심해야 한다.

푸 / 른 / 초 / 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난 일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만큼 그 어느 것과 다른 아무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행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결단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현재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동쪽 300Km 떨어진 곳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상업, 문화, 종교 중심인 오래된 도시인데 그곳에 거류하던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 편한 환경에서 떠나야 하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정든 이웃과 사랑받는 친족들과 헤어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시 회개하라 하였으니"(행17:30). 회

개는 사람과 상의 할 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일입니다.

2)모르지만 떠나야 합니다(히 11:8).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지라도 분명하게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확실한 내일이 없이는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내일은 몰라도 오늘 주어진 하늘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인도하십니다.

1. 우리도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땅은 보장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땅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영통한 곳에 머물면서 막연히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력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떠나기 쉽지 않은 환경도 무릅써야만 합니다.

2. 어려워도 머물러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여 하란 땅을 떠나 기대 속에 머물던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창 12:10).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났던 대단한 결단도 갈등할 만한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맞서서 해결하든지 도망하든지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에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도움 될 듯 한 풍요롭고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애굽 땅에 간 그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던 그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애굽 땅에 머무르려 합니다. 이제 그의 아내는 그의 여동생으로 알려집니다(창12:13).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은 무슨 명분이라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거짓말이라도 주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바로가 사래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일에 아브라함은 어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받으며 아내를 바로의 아내

1)말씀 따라 떠나야 합니다(창 12:4).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형편이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머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화려하

2)가정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5).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멋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한 기근에 궁여지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으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패닉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정을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주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언어난 약조는 하나님이 여기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행복의 약속입니다.

3)기회를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3)이웃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7). 바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각 못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바로왕의 집안을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마5:13).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1)자신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8,19).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달라 헛되지 않습니다. 혹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위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한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

2)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은 전 인격적이고 전 생활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물질도 다 돌아와야 합니다. 몸만 성전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쫓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5). 안하는 것은 아니라도 하는 것도 아닌 것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2)가정을 위한 일입니다(창 12:15). 아브라함은 하란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멋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한 기근에 궁여지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바도 아니었으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패닉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정을 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정을 책임져주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언어난 약조는 하나님이 여기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위한 행복의 약속입니다.

3)기회를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1면에서 계속)

그 아이들은 벌써 빈곤 상태로 팔려, 건강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분배돼 마치 고기처럼 팔려나간다"고 쓰고 있다.

UN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자 또한 "여자들에게 성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잔인하게 노예나 야기를 낳도록 하는 것이 바로 IS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와 자전의 핵심"이라고 지난주 조사 결과를 밝혔다. 대체적으로, 여자 아이들(1-9세)의 몸값은 43달러에서 172달러 사이에서 팔리고 있고, UN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의 여자 아이가 보통 20번 이상 결혼을 하며, 매 결혼 때마다 처녀성을 회복하는 산부인과 수술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자들만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가장 많이 부상되는 이유는 바로 적군이나 점령지를 완전히 케말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병들게 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르완다 대학살 당시 후트족은 에이즈 보균자들을 앞세워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다 더 나쁜 것을 줄 것이다. 너는 서서히 고통 받으며 죽게 될 것이다"며 여성들을 강간했다. 또한 전리품으로, 가족을 죽인 상

대방의 신부로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고, 위안부로 팔려 군사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볼 때, 조직적인 강간은 군의 숫자를 줄이고 반면에 야군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전략이었다.

바로 보코하람의 만행이 그러한 전략적 일환의 일종이라고 나이저리야 주지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에서 말했다.

보모하람의 리더들은 여성들을 강제로 임신시키는데 광분한다. 그 중에서는 잠자리를 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알려가서 하사하신 선물이라고 기도하는 극단적 테러리스트들도 있을 정도다.

따라서 강제로 강간하고 나면 많은 희생자들이 병에 걸리거나 미숙

아나 장애아들을 낳고, 트라우마나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도 많은 여자들은 지을 수 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히려 보코하람의 아내들로 남게 된다. 강제로 아이를 낳게 되지만, 여자들은 모성 때문에 아이를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아이들을 맡긴다.

(8면으로 계속)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업이나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히 13:5).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의식 주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 더욱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딤후 6:8).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자 애쓰다보면 시험과 울무와 여러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은 본질상 선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답을 가져야 할까요?

사업자의 자세

이런 부정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매우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만약 세상적인 사업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 전도를 위한 일, 선교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할 만한 일입니다. 사업터에서 직원의 노동력과 시간, 그들이 배운 기술, 모든 장비 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생업인 사람들이 이런 수단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돕고 부양하는 것입니다.

부와 세상의 사업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묵회서신을 통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딤후6:8)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업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업과 비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업을 했

들이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사업의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분명한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부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정욕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업의 유용성

그렇다면 세상적인 사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제와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난의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빈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업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 이윤석 목사

까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딤후 6:9)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렸도다'(딤후6:10)라고 말씀합니다.

제기되는 질문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이윤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부를 위해 부를 축적하려고 애쓰는 것은 성경과 대치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인가요? 이 때문에 세상에서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일해야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사업(business)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비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동양인에게나 서양인에게나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업이 선하고 추천할 만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생존과 생계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가들이 결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세상의 사업들이 오히려 추천받으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비취주는 세상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의 말을 듣고 바로 가서 사업을 하여 또 다섯 달란트의 이윤을 만들어 낸 종들에 대해,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25:14-20). 또한 예수께서는 므나 비유를 통해 주인이 자신의 종 열 사람을 불러 각각에게 한 므나씩 주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사업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눅 19:13). 오히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할 사업은 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제조하는 그리스도인 사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정당한 일이라고 권장

된 목적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업을 통해 그 자분을 맡겨주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사업에 대한 철교도적 사업 윤리

막스 베버(Max Weber)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에서 언급하듯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부를 만들어 내는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라는 생각에 충실한 것입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은 철교도들이나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자분을 늘리는 자체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윤리적 의무로 행해야만 하는 소명의 일로 생각합니다. 베버에 따르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물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즐기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선택과 칭의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사업의 목적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가

곤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끊임없이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부와 사업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소유욕을 갖는 것이 죄인가요?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연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자원의 청지기로서 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소유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행2:32-35). 초대교회 당시 믿는 신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4편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저는 종말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오시지요? 그리고 그의 정체와 휘두를 권세는 어떤 것인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톤에서 배 권사

A: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살후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므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 나타나...왕권, 종교, 상권 장악

예수님의 재림은 후삼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세상을 통일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극한 환난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신구약 성경은 5가지로 말합니다.

1) 짐승입니다(계13:1)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2)미운 물건입니다. 이것은 단9:27절에 나오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이레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벌반에(후삼년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3)멸망의 가증한 것. 마24: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 진저"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가 강요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4)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2:3) 5)자칭 하나님. 살후2:4절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엇을 장악합니까? 주로 3가지입니다.

1)왕권 장악-정치적 왕권과 권세를 휘두를 것을 말합니다. 계13: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왕권)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표범같이 무섭고 신속하고 곰의 발같이 정복력이 있고 사자의 입같이 삼키는 입이요 용처럼 마귀의 권세를 받았 습니다. 2)종교 장악 -종교통합을 할 것입니다. 계13:11을 보면 그는 새 교양인 거짓선지자 즉 타락한 종교지도자들을 대동하여 그들이 하수인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종교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짐승은 핍박하고 거짓선지자는 미혹하는 이 2가지 방법을 쓸 것입니다. 3)상권장악 -경제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계13:7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뿐만 사업을 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는 자는 핍박과 순교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6차 북미주연합 컨퍼런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3월 정기예배에서 광고드린바와 같이 2015년도 컨퍼런스가 아름다운 온타리오 호수가에서 펼쳐집니다. 본 회가 북미주교역자협의회와 함께 연합하여 회원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심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오니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참고하시고 5월 31일까지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시: 2015년 6월 22일(월) - 6월 24일(수)
- 장소: The Jackson's Point Conference Center, Ontario, Canada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http://usaamen.net/news/x/3c.pdf>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평강을 기원합니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람퐁(LAMPUNGSE)



람퐁족은 인도네시아 주요 섬들 중의 하나인 수마트라(Sumatra)의 남쪽 끝에 살고 있다. 한 때 그들은 그 섬에서 가장 큰 민족 그룹을 형성했지만, 지금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난 20년에 걸쳐 수마트라 섬으로 이주해온 3백만의 자바족이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람퐁족은 큰 고통과 불안을 느

켜돼 수마트라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삶의 모습

전형적인 람퐁 마을에는 막대기와 죽마 위에 지어진 고상식 가옥들이 있다. 이러한 가옥들은 "세사트(Sesat)"라고 불리는 마을 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다. 세사트는 일반적으로 큰 방 하나로 돼있는데, 다양한 집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방으로 나누어 놓았다. 마을 위편에는 이 세사트에서 모임을 갖는다.

람퐁족의 영토는 다섯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지역은 더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구역들은 남성 대표에 의해 다스려진다. 각 구역의 이름은 그곳에 사는 가족의 이름에 따라 붙여진다. 람퐁족 문화에서는 여성에게도 지위가 있다. 춤을 출 때 귀족 계급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대개 어부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부는 경작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활한다. 그러나 최근 자바족의 이주로 인해, 많은 농사꾼들이 멀리 북쪽으로 밀려나게 돼 일부는 농사를 포기하고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도심지로 옮기기도 했다.

아주 매력적인 람퐁족 문화 중 하나는 가족과 가문을 나타내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것밖에는 배나 사탕의 모양, 사람과 동물 형상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훌륭한 예술 작품들은 결혼이나, 제사의식, 위기 때에 걸려 있게 된다.

신앙

무슬림과 수마트라섬 사람들의 교역을 통해 이슬람교가 13세기

말 수마트라로 유입됐다. 이슬람의 영향은 서서히 람퐁족의 문화를 약화시켰고, 지역 대표는 마침내 그들의 지위와 힘을 잃게 됐다. 19세기까지 람퐁족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았다. 현재 람퐁족은 헌신적인 정통 무슬림들이다. 이는 이슬람 신앙이 정령수배(인간이 아는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남부 수마트라 부족들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주정책을 강제로 시행해 많은 람퐁족 사람들이 학대 받는다고 느끼게 됐고 이에 분개하게 됐다. 이러한 고통으로 새로 이주해온 자바인들과의 갈등과 대처 상태에 놓여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 슬프게도 람퐁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된 사

람들은 자바인 기독교인들이다. 인도네시아어가 매우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람퐁어로 출판되는 일반 및 기독교 자료는 거의 없다.

람퐁족은 새로운 사상에 관대하게 열려있는 종족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러 외부의 시도들이 많은 저항에 부딪혔다. 이러한 저항을 일으키는 요소 중의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애착이다.

현재 람퐁족 사이에서 사는 크리스천은 타 지역 사람들(주로 자바인)이 상당수 있다. 불행하게도 람퐁족 사람들은 자바인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알려진 람퐁족 크리스천은 오직 50명쯤이다. 비록 람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 보급될 준비가 돼있지는 않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강중에 독일도 영향권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일랜드의 강풍이 독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독일은 집권 기독교민주당(CDU) 등 주류사회의 종교적 신념을 비롯한 보수적 분위기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지난 22일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독일 법무부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오는 27일 동성커플의 권리 확대 법안을 각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법무부 대변인이 슈피겔 온라인에 25일 밝혔다.

공영 라디오 도이체벨레는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사는 동성커플과, 결혼한 부부의 권리 차이를 없애는 방향이라고 법무부 대변인이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마스 장관은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평등으로 향하는 진일보"라고 자평했다.

앞서 CDU와 대연정 소속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은 2013년 대연정 출범 전 맺은 협약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의 대연정 체제에서 결혼 합법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진보 야당인 녹색당은 독일이 이 사안에선 아일랜드에 뒤처졌다면서 정부의 권리 확대를 불충분하다고 비판하고 결혼 합법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CDU의 첫 커밍아웃 게이 정치인인 에스 슈판 의원은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했다면, 우리 독일도 할 수 있다"면서 독일인들도 기대 이상으로 이 사안에 관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디벨트는 보도했다. 또한, 천기업과 시장자유를 강조하는 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FDP)의 카트야 주딩 부당수는 합법화 찬반과 관계없이 SPD는 CDU가 반대한다는 핑계를 앞세우며 합법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 기독교인 87% SNS 이용

한국 기독교인 10명 중 9명 가량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76%는 하루 1번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SNS 이용실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기독교인들은 또 인터넷 여가활동으로 찬양 감상보다는 TV프로그램 등 동영상 시청을 더 자주 시청하고, 70%는 유튜브로 기독교 영상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사역연구소는 지난 1-2월 CTS기독교TV, 온맘닷컴, C3TV, 기독교인터넷쇼핑몰 '고집쟁이녀석들' 등의 회원 및 방문자 487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6일 밝혔다.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87%로 매우 높았다. 하루 여러 번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52%를 차지했고 하루 1번 정도는 17%였다. 시간마다 SNS를 접하는 사람은 7%에 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60.7%였고, 하루 1번 이상 사용한다는 사람은 53.8%였다.

SNS 중에서는 카카오톡(77%), 페이스북(76%), 네이버 밴드(51%) 이용(중복 선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각각 21%, 12%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98%는 하루 1회 이상, 57%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정보를 얻는 미디어에 대해서는 응답자(중복 선택)의 86%가 스마트폰을 꼽았고, 74%는 컴퓨터, 66%는 지상파TV라고 답했다.

인터넷으로 여가활동을 할 때 기독교인의 63%는 영화·TV 프로그램 등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찬양 감상은 59%로 나타났다. 라디오 방송 청취 및 일반음악 감상은 43%였고, 게임은 한다는 응답자는 21%에 달했다. 기독교 영상을 시청하는 매체로는 유튜브가 70%로 압도적이었다. 다음팟TV(17%), 곰TV(8%) 등 국내 온라인영상매체는 소수에 그쳤다.

F. 그레함, 연방대법 동성결혼 판결위에 기도 요청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랭클린 그레함(Franklin Graham) 목사가 기독교인들에게 판결을 내릴 9명의 대법관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그레함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9명의 대법관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레함 목사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대법원의 엘레나 카간(Elena Kagan) 대법관이 지난해 자신의 전 로클러(law clerk)를 위해 동성결혼을 허용했다"면서 "2013년에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이라고 진술된 연방 결혼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하는 데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에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는 "소토마요르(Sotomayor) 대법관은 동성결혼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한다면 미국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레함 목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레함은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과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 룩 베이더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 등을 위해서도 동성결혼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전 아칸소 주지사이자 공화당 대선후보인 마이크 허커비(Mike Huckabee)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동성결혼에 대해 판결을 내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은 가톨릭 신자이며 3명은 유대교 신자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은 오는 6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MC내 혐의회, 동성 결혼주례 허용법안 통과

미국 연합감리교 연대사역협의회(United Methodist Connectional Table)가 성직자가 동성결혼식에 주례를 서고 지방언회 회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성직자가 교회의 치리 없이 자신이 원할 경우 동성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고 동성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혐의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년 오리건 주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교단 법이 된다.

그러나 연합감리교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북음주의 프로그램 담당 디렉터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크리스천포스트에 혐의회의 법안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법안은 감리교의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연합감리교의 치리법에 따르면, 동성애는 기독교의 교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성직자는 동성결혼을 축복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도 없다.

미 남침례회, 방언금지 정책 변경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부(SBC IMB)가 2005년 방언(speaking in tongues)을 하는 선교사 후보들은 탈락시키는 특별지침을 마련해 지난 10년간 시행해오던 정책을 2015년 5월 13일부로 바꾸기로 했다고 종교통신(RNS)이 보도했다.



웬디 노벨 IMB 대변인은 "향후 방언을 하는 선교사

들을 위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한다고 긍정 하는 선교사들을 자동탈락 시켜주는 그동안의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근래 남침례회가 오순절과 등 방언을 장려하는 교파들과 선교경쟁을 해온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점차 방언신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웨이코프레스트신대원의 빌 레너드 교수(교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이 은사체현이 정상화되어 있다"며 "방언에 반대하는 교파나 교단들은 전도 면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교인수 약 1,600만에 달하는 미국 남침례회는 그동안 과거 기독교계의 다른 교파들이 가지 않았던 전인미답지를 포함한 세계 오지에 선교사를 과감하게 파견해온 교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3억 이상 되는 신자를 둔 오순절계와 선교지에서 치열한 전도경쟁을 해오면서 방언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돼왔다.

성경에서 '글로샤' 또는 '글로술말리아'라고 불린 것이 남침례교인들에게는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끝난 것으로 단정돼 왔다. 또한 방언 금지는 남침례회의 중요한 교단적 표지의 하나로 부각돼 왔다. 레너드 교수는 남침례회가 갈수록 유색인종들 간에 늘어나는 방언현상에 대해 인구학적 '트로마'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드 벌슨 목사는 "선교사 후보가 자신이 방언을 한다고 실도하면 결국 정직한 것 때문에 자동탈락이 되는 셈"이라고 황당해 했다.

IMB의 'FAQ'(자주 묻는 질문)란을 보면 아직도 선교사나 선교사 후보가 특정은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 은사라고 강조하거나 분열현상을 빚을 정도로 강조하면 선교사직을 잃는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선교부는 향후 이혼한 선교사들에게 장기선교를 비롯한 세 많은 포지션에서의 사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여타 교단에서 입수침례(immersion)를 받은 후보자도 앞으로는 인정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타 교단에서 전입해온 선교사 후보자는 반드시 남침례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했다.

'IS점령' 라마디 탈환 작전 개시

이라크 정부가 26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점령한 라마디를 중심으로 한 안바르 주(州) 탈환작전을 개시했다. 이번 작전에는 이라크 군경뿐 아니라 시아파 민병대, 안바르 주의 친정부 수니파 부족이 모두 참가했다. IS가 17일 안바르 주 주도(州都) 라마디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한 지 9일 만이다.



이들 연합 병력은 라마디를 여러 방향으로 포위해 IS의 보급로를 차단해 고립시킨 다음 시가전을 벌일 계획이다. 작전에 참여한 시아파 민병대의 아흐메다 알앗사디 대변인은 "(라마디 탈환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원 4천명이 라마디 북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니파 거주지역인 안바르주 작전에서 종파적 이유로 배제됐던 시아파 민병대는 이번 작전의 명칭을 '라바이크 야 후세인'(후세인이며, 제가 여기 있나이다)으로 정해 종파적 성격을 분명하게 했다. 후세인은 시아파 무슬림이 숭상하는 3대 이맘(예언자)으로 7세기 말 주류 수니파 세력과 전투에서 비참하게 살해됐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24일 바드르 여단을 주축으로 한 시아파 민병대 2만5천명이 라마디 탈환 작전을 위해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18개 주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안바르주는 수니파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시아파 위주의 이라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 IS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커 IS가 초창기 세력을 키웠던 근거지였다.

이라크 정부는 라마디 탈환 작전과 함께 북부 살라후딘주의 최대 정유도시 바이지에도 특수부대와 경찰, 시아파 민병대를 증원해 IS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이라크 정부는 라마디와 바이지를 동시에 공격해 IS의 전투력을 분산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지는 지난해 11월 이라크군이 5개월 만에 IS로부터 탈환했으나 올해 초 IS의 공격을 받아 다시 내렸다.

바이지는 바그다드와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중간에 있는 요충지이자 정유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IS가 차지하게 되면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담임목사 청빙

-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 졸업(M.Div) 한 분으로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 (영어 원고 설교 가능)
3. 영주권, 시민권을 소유한 분.
4. 4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목회 비전,
2. 학력 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3. 최근 설교동영상이나 CD 2편,
4. 두(2) 분의 목회자 추천서
5. 최근 4주일 치 교회주보
- 기타문의: 1. 모든 청빙 서류는 e mail 로만 받습니다.
2. 1 차 서류에 통과하신 분에게만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청빙에 관한 문의는 e mail 로만 받습니다.
4. 2014년도 11월에 서류제출 하신 분들은 배제합니다.

제출 마감일: 2015년 6월 12일

서류 제출처: OCPC 청빙 위원회,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E-mail : InvitationToOCPC@gmail.com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 주일학교 유년부 전도사님과 예배 반주자도 청빙 합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교부 (4) 속사도 교부, 폴리카프

'나는 가수대'라는 TV프로그램이 있다. 프로 가수들의 경연대회이다. 관객과 시청자들로부터 가수들의 노래실력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저조하면 탈락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전혀 새로운 개념이다. 가수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이다. 가급적 경연대회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럼 누가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할까? 나를 가수로서의 자부심과 도전정신을 지닌 소수일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성도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외치고 삶으로 보여야 한다. 세상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질문: 순교의 상황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인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서머나의 폴리카프

폴리카프(Polycarp)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다. 그의 삶과 사역의 배경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다. 그는 원래 안디옥 출신으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 요한은 폴리카프를 서머나교

회의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다. 자연히 속사도 교부로서의 그의 신학과 사역에는 요한의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폴리카프는 사도 요한의 다른 제자였던 속사도 교부 이그나티우스

스는 모두 7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서머나에 머무는 동안 4편을 기록하였다. 나머지 3편 가운데 2편이 폴리카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한편은 폴리카프를 다른 한편은 서머나교회를 수신자로 적어 놓았다.

현재 남아있는 폴리카프의 글은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뿐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편지를

게 편지를 보냈지만, 각 교회는 그 편지를 베껴서 공유하였다. 결국 이런 형식으로 여러 교회에 회자되던 그의 편지들이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으로 정경화 된 것이다.

'사도적 신앙'을 담은 교부들의 글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였다. 폴리카프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빌립보 교

로 끌려가 처형당한 후 약 반세기를 더 살았다. 동역자의 순교가 분명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특히 로마정부가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 서머나를 경유하도록 일정을 잡은 것은 분명 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너도 이런 죽음을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

이 닦여왔다.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다. 원형 경기장에 많은 군중이 모였다. 성도들이 맹수의 먹이 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기뻐 날뛰며 흥분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배교를 선택하는 소수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짐작하게 순교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교인들의 배려로 은신처에 머물고 있던 폴리카프가 한 노예의 누설로 인해 체포당하게 되었다. 치안관들은 백발의 노인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나름 안타깝게 여겼다. 체포하려고 들이닥친 자신들을 환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며,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경건한 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치안관들은 폴리카프에게 배교를 권했지만 당연히 실패하였다.

원형 경기장에 도착한 폴리카프를 신문하던 전집정관 역시 배교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폴리카프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대대히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아가서 군중에게 큰 목소리로 설득하였다. "무신론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결국 폴리카프는 화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지난 86년간 그분의 종이였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는 준비된 장작더미로 당당하게 걸어들었다. 불이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하자, 결국 칼로 그를 죽였다.

폴리카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가 섬겼던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그의 죽음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폴리카프 순교록'을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13면으로 계속)

사도 신앙 전수 받은 서머나교회 감독, 86세에 화형

"나는 그리스도인" 정체성 잃지 않는 것이 순교 정신

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두 교부들은 사도 요한의 생생한 경험에 근거한 복음을 전달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도적 신앙'을 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계승하는 일이었다.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카프의 관계를 살펴보자. 안디옥교회와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목양에 최선을 다하던 두 사람은 스승의 뜻을 함께 품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서머나를 경유하였다. 폴리카프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를 크게 환영하였다. 이그나티우스

기록했지만 분실된 듯하다. 그나마 '빌립보 서신'이 보존된 것이 다행이다. 이 글을 통하여 폴리카프의 사상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서신'은 전편과 후편 두편의 서신이 합쳐져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신의 내용 중에 13장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빌립보교회가 폴리카프에게 이그나티우스로부터 받은 편지를 베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당시 한 교회나 개인이 받은 편지를 다른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그가 특정한 교회에

인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글을 포함하였다.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성도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하라고 권고를 한 후에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이단의 함정을 경계하라고 적었다. 폴리카프도 영지주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폴리카프와 이그나티우스는 복음 안에서 동역의 길을 걸었다. '사도적 신앙'을 전수받은 그들은 받은 편지를 베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에게 주어진 초대 교회 교인들을 양육시키고 보호하는 사명 때문이었다.

■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폴리카프는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의 메시지가 담겨있었을 것이다.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폴리카프는 '사도적 신앙'을 지녔던 교부였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기에 반드시 십자가의 증거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쳤다. 또한 구원 받은 성도는 삼관주로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새겨 행함은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닐 것을 역설하였다.

폴리카프가 86세가 되는 해에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에게 큰 시련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9)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왕은 아무나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그 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다. 왕은 그 사람을 쫓아냈다(마22:14).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초

청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지나가다 "끌려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급하게 불러온 사람들이다. 준비하고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쫓아내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그들은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예복 같은 것을 갖고 있을 만큼 부자들도 아니었다. 물론 빌려서라도

입고 오면 되겠지만 빌릴 시간도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다놓고는 무슨 예복 타령인가?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예복을 집에서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왕이 예복을 준비해 놓았다가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보통 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잔치는 왕의 잔치였다. 그래

서 예복을 입어야 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왕이 예복을 준비해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왕하 10:21:22).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복은 본인들이 준비해 간 것이 아니고 왕이 준비해 놓은 것이 확실하다. 왕을 들어,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입는다. 집에서 각자가 준비해서 입고 오는가? 아니다. 교회에 준비되어 있다. 교회에 와서 가운을 입기만 하면 된다. 이 잔치도 마찬가지로

였을 것이다.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유구무언이었다. 이어나 핑계를 댈 것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다 준비해 놓았는데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노했을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할 정도로 관대한 왕이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좋은 날 잔치 자리에서 화를 내며 쫓아낼 필요까지 있었을까?

왕은 단순히 예복을 입지 않아서 진노한 것이 아니었다. 예복까지 다 준비해주었는데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었다. 그것은 왕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왕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왕에 대한 무례이고 불손이다. 왕을 경시하는 것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다.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왕의 기

분을 충분히 상하게 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설교를 들어보면 백이면 백 다 그 예복이 '선한 행실'의 의미한다고 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계19:8).

이런 '선한 행실'의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 잔치 자리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두 참석했다.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면 악한 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모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처럼 쫓겨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지 않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만 쫓겨나지 않았는가?

(13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혜애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를 모십니다

1. 주일 학교 교육 전도사

-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신 분
- 교사들을 지도해주실 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
-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lapc2@sbcglobal.net)이나 전화(323-954-884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Los Angeles Presbyterian Church)



가공할만한 미래, 2025년!

허핑턴포스트, 지구촌 정상급 미래학자 7명의 향후 10년 과학기술 예측 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스마트폰 애플터 무인자동차, 오싹할 정도로 사람을 닮은 로봇까지, 지난 십 년 동안 과학과 기술은 드라마틱하게 발전했다. 앞으로 십 년 동안에는 어떤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될까?

미치오 카쿠 박사(뉴욕시립대 이론물리학 교수,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 저자)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다. 생각, 감정, 느낌, 기억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일부 해독해 낼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도 혁신할 수 있다. 미래의 영화는 음악의 이미지뿐 아니라 감정과 느낌까지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심대들은 소셜 미디어에 열광하며 자신들의 졸업식, 첫데이트 등의 기억과 감각을 올릴 것이다) 역사가와 작가들은 사건들을 디지털로 기록할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기록

하지만, 2025년까지는 인간의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건 2030년대에 일어날 일이다. 인간생물학을 재프로그래밍해서 여러 질병과 노화과정에서 자

신체적 복지가 나아진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지만, 내가 더욱 기대하는 것은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정신 건강 케어를 위한 앱도 그와 함께 발전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3D프린터는 조작된 줄기세포로 인체 장기 프린트

M-헬스 치료의 대혁신·웨어러블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

온-디맨드 세계로 변화·뇌와 몸 인사이트 기술 향상·제도적 변화가 난제

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서로의 고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알력조차 줄어들지도 모른다.

레이 커즈와일 박사(발명가, 선구적 컴퓨터 과학자, 구글엔지니어링 디렉터)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옷을 프린트할 것이다. 무료 오픈 소스 디자인이 많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돈도 갖는 디자이너의 최신 옷 파일을 받고 주고 다운로드할 것이다. 공짜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데도 사람들이 e북, 음악, 영화에 돈을 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는 조작된 줄기세포로 인체 장기를 프린트할 것이다. 환자 자신의 DNA를 사용한 장기의 공급은 부족할 일이 없고, 거부 반응도 없다. 재프로그래밍된 줄기세포로 손상을 입은 장기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 마비로 손상된 심장 같은 것 말이다. 3D 프린터로 저렴한 모듈들을 프린트해서 레고처럼 딱딱 맞춰 집이나 사무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도 서로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서로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바타다. 무척 흥미롭겠

유로워일 것이다. 예를 들면 암의 진짜 원인인 암 줄기세포를 비활성화 시킨다거나, 심장병의 원인인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남기고 간 정보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들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된다(이메일 등 그들이 쓴 글들, 이미지, 비디오,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역시 굉장히 흥미롭겠지만 전적으로 사실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가능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제인간' 기술에 당황할 것이다.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로봇을 볼 때 드는 불안감, 혐오감이 있기 때문이다.

안네 리세 키에르 박사(런던의 트렌드 예측 에이전시, 키에르글로벌 창립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무렵에는 전 세계 사망의 75% 정도가 만성 질병에 의한 사망일 거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M-헬스(모바일 진단, 바이오-피드백, 개인 모니터링)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증세의 치료에 대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 전문 인력이 디자인한 앱이 효율적인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만성 증세에 지금보다 훨씬 일찍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커뮤니티에서 라이프스타일과 생명결과를 개선할 것이다.

하리라는 점이다.

제임스 칸트 박사(샌프란시스코의 글로벌벤처협회 CEO, '미래의 스마트: 세상을 바꿀 게임을 바꾸는 트렌드 매니저 하기 Future Smart: Managing the Game-Changing Trends that will Transform Your World' 저자)

웨어러블 모바일 디바이스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2025년 무렵에는 모든 나라, 커뮤니티, 회사, 사람과 모든 것의 거대한 인터넷이 생길 것이다. 교육, 헬스 케어, 직업, 엔터테인먼트, 커머스의 실시간 접근을 가속화할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인간만큼 똑똑해지고,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AI는 자동차, 로봇, 가정, 병원에 임베드 될 것이다. 병원에서는 AI이코노미가 생겨날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인간과 로봇은 디지털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합쳐질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로봇-외과의가 수술을 할 것이다. 로봇-닥이 아기를 받고, 휴대전화로 환자를 치료할 것이다.

예측 의약품이 헬스 케어를 뒤바꿔 놓을 것이다. 우리가 내쉬는 숨을 맡아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의료기기,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프리 DNA 시퀀싱이 흔해질 것이다. 개인에게 맞춘 유

전의학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고, 생산성을 잃은 수십억 명을 구할 것이다..... 차세대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현금을 대체할 것이고, 디지털 커머스와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것이다. 합법적인 새로운 경제가 생겨난다.

제이슨 실바(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 '브레인 게임' 진행자)

온-디맨드 혁명이 온-디맨드 세계로 바뀔 것이다. 생물학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개인 맞춤 의약품, AI 어시스턴트, 트라 점점 헬스케어와 복지를 탐바꿈시킬 것이다. 자동화가 늘어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끝없이 풍성해질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보편화될 것이며, 이동 자체가 자동화 되고, 깨끗하고 저렴해질 것이다. 우리는 접근성이 차량 소유를 이기는 세상,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갈 것이다.

에이미 절먼 박사(월드퓨처소사이어티 CEO 겸 회장)

현재 연구자들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뇌와 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은 점점 더 예리해진다. 몇년 전, 하버드의 연구자들은 리더들이 리더가 아닌 사람보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벤-구리는 대학에

(4면에서 계속)

그래야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주지사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자신의 후손들이 신앙을 계승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인피델들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해서는 성적 폭력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에서 가장 오래된 전략 즉 "종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방법이 보코하람과 IS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민수기 31장은 어쩌면 이러한 동기를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를 강제로 강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신명기 20-2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로잡힌 여자들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다. 구약에서 민수기 31장, 사사기 21장 등등은 성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의도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설명해준다. 여성을 상품이나 전리품으로 취급해 이스라엘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인간의 악한 의도를...

구약 성경에서 전쟁 때마다 등장했던 악한 행위들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보코하람이나 IS의 만행과 엇비슷하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을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타락과 인간의 악을 지배하는 악한 인간의 죄성을 말해준다.

개혁주의 신학자, 홀콤(Justin Holcomb)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성경의 근본적인 전제는 바로 타락한 세상, 특히 타락한 인간성이 폭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인류의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성과 출산, 원래는 삶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한 의도가 폭력의 순환에 왜곡된다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같이 세상을 다스렸으나, 타락 후에는 한 쪽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되었다. 실제로, IS와 보코하람이 여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반절만이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밝히셨다", 즉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적인 혈연이나 정복된 사람들로 만들어진 가족은 없다.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는 그 지평을 열어나오기 오늘에 이르렀다.

보코하람과 IS는 오래된 방식을, 타락한 인간의 행위, 지금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건, 그래야만 그들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들이나 기독교의 성장은 역시 종종 가족 간의 신앙 계승을 통해서만 보장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로 선포되며 자비와 치료의 행위들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대로 보여준 신앙 체계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도는 그만큼 독특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천이다.

결론으로, 보코하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어린 소녀들을 피랍해 강제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미래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기도해야 된다. 보코하람이나 IS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도록... 그리고 희생당한 여성들이 트라우마나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와의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한다!

자기 부정과 비하, 멸절과 파괴,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져 부정적 자아상을 품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여기 사랑과 은혜, 꿈과 확신으로 가득한 창조적 자아상으로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대는 질그릇 인생인가, 청자, 백자 같은 곁작품 인생인가
연습과 리허설이 없는 **한 번 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대,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교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명작!
책을 펼치는 순간,
그대에게 최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

소강석
지음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8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페어데이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스색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 사막에서의 열매가 264면 / 10,000원
- 레위기에서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



목회서신

지쳐만 가는 직분자, 대책은 없는가?



여승훈 목사

“목사님, 교회 일에 이리저리 뛰 어다니느라 너무 지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겠습니다.” 필자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다. “목사님,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곳저곳 교회를 방문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필자가 아는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다.

고 때로는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이해타산에 따라 실망감으로 다가 오기도 한다. 지쳐가는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목회적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 전 어느 날 아침에 필자가 자동면도기를 사용하면서 조금 짜증이 났었다. 이유는 면도기가 작동은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필자의 아내가 자동 면도기 뚜껑을 열고 쌓여있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필자가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유해서 헛바퀴가 돈다는 말을 한다. 직분자의 봉사는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 받으셔서 은혜의 힘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혼의 내면이 정화되지 못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다. 주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내 힘과 내 열정 과 내 열심으로 행하면 분주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효과 없는 헛바퀴만 돌게 되는 것이다. 이런 헛바퀴의 연속이 결국 스스로를 지쳐만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로운 각오로 교회를 섬기려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되짚어 보아야 할 뿌리적 사고를 간파해서는 안된다.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섬겨 주시는 섬김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부터 먼저 섬김을 받지 않고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을 참조해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므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자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미주총신대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갑절의 영감으로 나가라” ...25명 졸업 미주총신대 제3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미주총신대학교(총장 김근수 박사)는 23일 오후 4시 본교 채플실에서 제 3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갖고 2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들이 사역과 목회현장으로 나가며 두려움도 있었지만 열리아의 영감이 갑절이나 임해 능력 있는 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 바란다. 우리가 새 시대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방책은 십자가의 도박에 없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힘 있게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정완기 목사 격려사,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금번 학위식에서 이사장상(공로상) 김영임, 총장상(학업우수상) 이수연에게 수여했으며 학위를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신학박사(Th.D.) 김덕원, 이종우 △기독교교육학박사(D.C.Ed.) Teoh Boo Cheow △교회음악박사(D.C.M) 최근호 △목회학박사(D.Min.) 김요한, 임민혁, 홍대현, 안진호, 최형식, 조광운, 김시한, 정수연, 정기성, 민상덕, 권기원, 남궁성 △목회학석사(M.Div) 정찬우, 김영임 이상윤, 정태웅, Chua Meow Lin △신학석사(B.Th) 오준용, 이수연 △교회음악석사(M.C.M) 이성희, 박문



아메리칸인연합재단 발기인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아메리칸인연합재단 22일 발기인총회 10월 창립총회 앞두고... 미주한인전국재단은 역사 속으로

아메리칸인연합재단(가칭 America Korean United Foundation, USA) 발기인 총회가 22일 오후 5시 JJ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아메리칸인연합재단은 오는 10월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본 총회는 총회의 전신인 미주한인전국재단(회장 이후호 목사) 시대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새로운 총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동 재단은 지난 2월 26일에 있었던 미주한인전국재단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라 단체명, 로고, 정관 및 조

직을 개편해 새로운 단체로 출범하기로 하며 따라 ‘아메리칸인연합재단’으로 명하고 회장에 이후호 목사, 발기인 대표로 임용근 의원, 조웅규 의원, 최인환 목사, 김현국 목사, 이성우 목사, 이상명 목사, 한성수 목사 등이 주축을 이뤄 결성했다.



제 37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새 총회장에 엄기환 목사, 부총회장 강유남 목사 제37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37회가 5월 18일 오후 6시30분 뉴저지 소재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개최됐다. 개회예배는 직전총회장 정익수 목사의 사회로 정대영 목사의 기도 후 김중태 목사의 성경봉독, Yes Lord밴드 특주 후 정익수 목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12: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사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임근만 목사의 축도로 폐했다. 새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엄기환 목사 △부총회장: 강유남 목사 △서기: 임근만 목사 △부서기: 김중태 목사 △회의록서기: 한상흠 목사 △부회록서기: 이계성 목사 △총무: 홍성표 목사 △회계: 변병두 장로. 이번 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LA노회 경과보고를 받고 해체키로 하다. >서부노회 조직정원을 받기로 하고 관계일체를 일임키로 하다. >LA 총회인준 신학교 개설

을 임근만 목사에게 일임 가을학기부터 실행케 하다. >본 교단 3대 혁신을 시행케 하다: 1)과거 불법과 관행적인 편법을 단호히 혁신함 2)개혁주의 칼빈 신학사상 정치를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함 3)이중 교적자 및 한국의 목회자와 기존 미달자는 제외됨. >제36회 총회 때 남가주노회 및 결속관계건을 원인을 무효키로 하다. >동성결혼은 비성경적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배척하기로 하다. >칼빈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입각한 헌법정치를 고수키로 하다. 한편 회의 후에는 장로교회사, 교회헌법, 회의진행법, 목회자질문 등의 특강을 실시했다. <기사제공: 해외총회>



이민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 실시 캘리포니아신학교, 하계 동계 각각 2주씩

46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신학교(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Dr. Joseph LoMusio)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현대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해 신학적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건강한 이민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1기 이민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목회자

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으로 마련됐다. 학교관계자는 “목회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민 목회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장교육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목회자의 자질 향상과 스스로의 목회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은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하며 “미주 내 이민 목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강료로 목회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장교육프로그램은 이민목회현장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해 목회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된다. 강좌는 매년 두 차례 하계(6월)과 동계(1월)로 나누어 2주간씩 진행하며, 참석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다. 제1차 하계강좌는 오는 6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2주간 실시되며 총 5과목(과목당 4회 수업)이 개설된다. 수업장소는 본교 강의실(13280 Chapman Ave 4th Floor, Garden Grove)이며 모집정원은 20명, 수강료는 500달러이며 1주 수업료는 250달러다. 등록마감은 6월 1일까지다. 자세한 것은 (714)638-831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캘리포니아신학원>

“주여 나를 써 주소서” 주제 살롱장로교회 춘계부흥사경회, 강사 허상희 목사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2015년 춘계부흥 사경회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허상희 목사(뉴저지 성도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됐다. “주여 나를 써 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 첫날 허상희 목사는 사도행전 6장 1-7절을 본문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첫날 사경회는 대표기도에 김은주 목사(로렐교회 담임), 특송 김미정 김미선 자매, 축도 정성중 목사(사랑교회 담임)가 맡아 지역 교계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상희 목사는 둘째 날 새벽 “은혜받는 사람들”(왕하2:1-14), 저녁 예배 “훈련받는 사람들”(눅5:1-11), 주일 낮 예배는 “축복받는 사람들”(요삼1:2-4), 오후에는 “변화 받



살롱장로교회 2015년 춘계부흥 사경회에서 강사 허상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HYM화요기도모임으로 열린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아름다운동행' 집회가 은혜한인교회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동행' 집회 시작

원하트미니스트리-HYM화요기도모임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와 HYM(대표 더글러스킴)은 19일 저녁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아름다운 동행' 집회를 가졌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피터박 목사가 마태복음 5장 21-22절 말씀을 선포했으며, HYM스텝들과 더글러스킴 대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피터박 목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다. 예배가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많다. 누군가에게 혹은 어떠한 것들로 인해 응답하지 못했다면 재물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고백

해야 한다. 용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인생을 결코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HYM이 16년 동안 꾸준히 사역을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연합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기에 매우 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원하트미니스트리가 시작한 동행 집회를 HYM화요기도모임으로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 집회 참여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HYM을 통해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청년사역이 활발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총 27팀 50여명...대상 이서현

미주동요사랑회, 제13회 동요부르기 대회 성료

미주한국일보가 주최하고 미주동요사랑회(회장 이해자)가 주관한 제 13회 동요부르기 대회가 23일 오후 3시 LA한미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3회를 맞고 있는 동요부르기 대회는 각 교회 부설 한국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창과 중창 부분으로 나눠 총 27팀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정곡(예쁜 아기곰, 꽃밭에서, 산마루에서, 구름, 푸르다)과 자유곡 1곡을 불러 참석한 모든 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인도했다.

특히 최연소 김하람 어린이의 자유곡 '참 좋은 말'은 박자와 음정이 쉽지 않은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쪽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잘 불러 박수갈채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이서현 △특별상 황가환 △최우수상 김하람, 유선하, 성다인, 정예원, 브레인집 △우수상 지예진, 이은유, 김윤, 정하늘, 코헝가



최우수상을 받은 김하람 어린이가 '예쁜 아기곰'과 '참 좋은 말'을 부르고 있다.

꾸러기 중창단 △장려상 조예은, 이진, 김수연, 신혜수, 변연호, 방은진, 야곱의 축복 중창팀, 코헝가 5학년 중창팀.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커뮤니티 봉사상 수상

LA카운티 아시안공무원협회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5월 20일 LA카운티 공무원협회의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봉사상은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다운타운에 위치한 그랜드공원에서 기획했던 특별 이벤트로 한인가정상담소 이외 Asian Youth Center, Hans Liang 몬테레이 시장, Howard Lee Halm 고등법원 판사가 수상했다.

한편 가정담소는 19일 오후 1시, 한인타운의 봉사 나눔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LA코리아타운

로터리클럽으로부터 가정 폭력 피해자 및 사이버버들의 자조 모임인 "라이프 비운드"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2500달러를 전달받았다.

한인가정상담소 관계자는 "후원금을 통해 앞으로도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및 사이버버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아트 워크샵 및 가정 폭력의 아픔을 겪은 한인 여성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LA 코리아타운 로터리 클럽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 지원금 받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LA Bible Conference위한 클래식 콘서트를 마치고 연주자로 참석한 뉴욕리스트만 음대 학생들과 주최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LA Bible Conference 후원 클래식콘서트

이스트만 음대생들 최고의 연주로

LA Bible Conference(LA말씀사경회)의 후원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가 22일부터 24일까지 남가주에 있는 세 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미국 내에서 최고 명문 음대로 있는 이스트만 음대생들의 연주회로 진행됐다.

22일 그린힐스침례교회(담임 정기정 목사)를 시작으로 23일은 로스엔젤레스은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 그리고 24일에는 연약교회(담임 오영환 목사)에서 열린 콘서트는 석 박사과정 중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레퍼토리를 관객들에게 들려주었으며, 그들의 진솔한 연주에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성원했다.

연주자는 소프라노에 김현지, 피아노에 김가을, 정예원, 오보에에 이지원, 바이올린에 박지은, 이효

경, 비올라에 나찬미, 첼로에 신지인이 함께 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김현지 자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다"고 말했다.

김가을 자매는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받는 느낌을 받게 돼 감사하다. 이 채워 주심을 통해 연주가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연주했다. 그 사랑이 관객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주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3일 공연은 1부 소마 트리오의 String Quartet in B-flat Major, Op. 76, No. 4 'Sunrise', 피아노 독주 Piano Sonata No.20 in A Major, D 959, Sonata No. 7 for Violin and Piano, 오보에와 피아노 협

서부교계 게시판

제1기 요한계시록학교

제1기 요한계시록학교가 6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3일간 총현 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요한계시록 분야에서 대한민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필찬 박사(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교수), '종말과 교회,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요한계시록학교의 일정은 4일과 5일은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6일(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된다.

▲문의: (818)482-6941 김기봉 목사

미주 군사장선교회 5월정기모임

미주 군사장선교회(CLMM 회장 김희창 박사)는 5월 30일(토) 오전 11시 월드미선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6층에서 5월정기모임을 가진다. 이날 모임의 강사는 권 데이비드 목사다.

▲문의: (818)472-4827 이종수 부회장

월드미선대학교 한인가정상담소

월드미선대학교 부설 한인가정상담소에서 '분노,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일정은 6월 4일, 11일, 18일, 25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장소는 월드미선대학교 501호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비용은 무료.

▲문의: (213)738-6930

나성 금란교회 섬머스쿨 개최

나성 금란교회(담임목사 정상용)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섬머스쿨을 개최한다. 초등학교 1-5학년(2015-2016년 기준) 대상으로 열리는 섬머스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점심이 제공된다. 등록비는 매주 170달러이며 내달 5일 등록이 마감된다.

▲문의: (213)703-8309

좋은마을축제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좋은마을축제를 31일(주) 오전 11시45분 개최한다. 이날축제는 주일예배, 먹거리장터(떡볶이, 어묵, 핫도그, 김밥, 팝콘 등 다양한 음식장터), 게임부스(경품제공), 기독교서적판매, 민속춤 공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의: (714)646-9259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세 누림' 세미나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권세 누림'이란 주제로 미주 지역 세미나가 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오후 7시 남가주 성시교회(7307 Orangethorpe Ave. Buena Park)에서 열린다. 강사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가 맡는다. 이어서 목회자 및 리더십 멘토링 미팅이 8일부터 9일까지 UBM 교회(1531 S. Sinclair St. Anaheim)에서 진행된다. 세미나와 멘토링 미팅은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도 환영한다.

▲문의: (714)469-1200

소프라노 김혜진 맹큐 콘서트

소프라노 김혜진 집사의 맹큐 콘서트가 6월 6일(토) 오후 6시 싸우스 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탤런트 이훈, 재즈피아니스트 윤국형, 피아니스트 이하늘, 바이올리스트 윤성원, 첼리스트 박수정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310)372-4751

연 'Interlude for Oboe and Piano, Op. 21'가 연주되었다. 2부에서는 Fantasie in C Major, Op.17 피아노 독주와 첼로와 피아노의 협연 "Sonata in G Minor for Cello and Piano, Op. 19," 소프라노의 'Ah, Je veux'와 'Oh, Divine Redeemer' 등

을 연주했으며 앵콜곡으로 김현지 자매가 '금향로가 차가까지'를 불렀다.

▲문의: 강영수 목사 (213)598-5323
www.labibeconference.org
(박준호 기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주일예배: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pcsausa.com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부영양: 오전 10시, (만: 오전 11시) 유치, 유년노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일오후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 701 Scalesboro R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오후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 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ausa.com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wjms.org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부: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28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일예배: 오후 8:00 Tel: (915)755-1490, 사해: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수일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EM) 수일오후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애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일오후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침례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수일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일 예 배: 오후 7시 새 목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ccmccr.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국민일보 '서울시 4만5496명 표본조사 자료' 보도

서울시민의 26.3%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인은 10.6%, 천주교인은 9.4%, 무교인은 53.5%였다. 이는 기독교의 교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회현장의 목소리와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시 5개 권역(동남·동북·도심·서북·서남) 중 가장 높았다. 이 지역은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오문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 대형교회들이 위치한 곳이다. 강남권의 기독교인은 6-11%에 그친 불교인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

서울시민 기독교인 26.3% 종교 중 1위 교세위축 느낌은 '가나안 성도' 많은 탓 불교 10.6%, 천주교 9.4%, 무교 53.5%

서울서베이 종교 응답자 특성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용산구(32.8%)였으며 송파구(32.5%) 도봉구(31.2%) 강동구(29.5%) 영등포구(28.5%)가 뒤를 이었다. 기독교인이 가장 적은 구는 광진구(16.8%)였다.

특히 강동·송파·강남·서초구가 포함된 강남권(동남권)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평균 29.2%로 서울

무교인이 가장 많은 곳은 광진구(64.7%)였고 동대문구(63.6%) 관악구(62.1%) 중구(58.1%)가 뒤를 이었다. 기독교인은 성별, 학력, 결혼여부, 소득, 계층, 직업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다. 남성의 23.8%, 여성의 28.8%가 기독교인이었다. 기독교인은 젊은 층에서도 타 종교인보다 월등히 많았다. 10대, 20대 기독교인의 비율은 각각 25.0%,

26.9%로 3-4%에 그친 불교인이나 8-9%인 천주교인을 크게 앞질렀다. 불교는 50대 이상에서만 10%를 넘었다. 천주교는 전 연령대에서 8-10% 수준을 유지했다. 학력별로 보면 기독교는 대졸 이하까지 25-26% 정도였고, 대학원 이상에서는 35.8%로 높았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종교인구를 조사했는데 기독교인은 그들

어들이 2013년에는 0.7% 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불교인이 다시 천주교인을 1.2% 포인트 앞서는 등 서울시 2위 종교를 둘러싼 경쟁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목회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목상 성도만 많으면 예배 출석이나 헌금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4만5496명을 표본 추출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구별 인구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조사결과를 확정했다. 표본오차는 ±4.09%이며 신뢰수준은 95%다.

안 25-27% 수준을 유지하며 1위를 지켰다. 가장 높은 해는 2007년(27.2%)이었으며, 2011년 25.6%로 내려갔다가 2012년부터 26% 이상으로 다시 올라섰다.

반면 불교인은 2007년 16.2%를 기록한 뒤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2013년 10.4%, 지난해 10.6%로 내려앉았다. 천주교인은 2007년 9.6%로 불교에 비해 6.6% 포인트 뒤졌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줄

어들이 2013년에는 0.7% 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불교인이 다시 천주교인을 1.2% 포인트 앞서는 등 서울시 2위 종교를 둘러싼 경쟁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목회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목상 성도만 많으면 예배 출석이나 헌금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4만5496명을 표본 추출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구별 인구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조사결과를 확정했다. 표본오차는 ±4.09%이며 신뢰수준은 95%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이번 조사에서 인간의 신념, 기본적인 소속감에 해당되는 종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들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이단검증특위' 전문위원 위촉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재심 작업 시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류광수, 고 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이단검증특위·위원장 오관석 목사)가 꾸려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기총 이단검증특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걸음을 뒀다.

교단별 전문위원으로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장계은(서울기독교대) 교수,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김형목(성지교회)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영석(협성대) 교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김호성(국제신학연구원)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장동민(백석대학교) 목사, 예장통합 구춘서(한일장신대) 교수,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이재정(익산 삼광교회) 목사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기성을 제외한 6개 교단 인사들은 교단 총회에서 파송됐으며, 당초 동참하기로 했던 예장통합이 빠지고 기성 교단 인사가 합류했다. 기성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파송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재정 목사는 한기총 이단검증특위의 요청을 받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들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주요 교단 출신들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단검증특위 관계자는 25일 "이들 전문위원 외에 1-2명 정도가 추가로 검증작업에 합류할 수 있다"

제12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시상식 원팔연 목사, 유중현 목사, 고세진 목사, 이은대 목사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백석아트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증양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이사장 안준배 목사)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제12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선정하고, 목회자, 부흥사, 교육자, 사회봉사 4개 부문에서 시상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당회장), 부흥사부문 유중현 목사(성현교회 당회장), 교육자부문 고세진 목사(아신대 총장, 근동 고고학자), 사회봉사부문 이은대 목사(사단법인 사랑나눔, 충주그리스도의교회 당회장).

시상식은 세계성령증양협의회 본부장 김용덕 목사의 사회로 정인

찬 목사, 소강석 목사, 안준배 목사, 김창근 목사, 손광호 목사, 유진기 목사가 순서를 맡아 진행했으며 대표회장 정인찬 목사는 "헛되지 않은 수고"(고전15:57-58)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정인찬 목사는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라가는 사람의 길이 된다고 하기에,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의 발자취는 한국교회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상은 해당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령의 사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김선주 목사를 통해 발원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해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단검증특위의 활동 시한은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9월 전까지다. 향후 2-3개월 정도로 전망되는 활동 기간에는 전문위원들의 1·2차 연구 및 토론, 3차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단검증특위의 활동 시한은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9월 전까지다. 향후 2-3개월 정도로 전망되는 활동 기간에는 전문위원들의 1·2차 연구 및 토론, 3차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단검증특위의 활동 시한은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9월 전까지다. 향후 2-3개월 정도로 전망되는 활동 기간에는 전문위원들의 1·2차 연구 및 토론, 3차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시민 위한 건전한 축제 아니다" 한교연 양병희 회장, 쿼어축제 반대 시위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나타났다. 굳은 표정이었다. 양 대표회장은 한동안 물끄러미 서울시청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려 한교연 로고를 있는 노란 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동성애시장, 불교시장 OUT'이라고 적힌 팻말을 번쩍 들어올렸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수장이 직접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다음달 9일 쿼어문화축제 개막식과 28일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허용했다. 동성애 단체들은 2009년부터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갖겠다고 서명운동을 하고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을 들여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달 처음으로 서울광장의 문을 열어줬다. 동성애자들은 "서울의 중심인 서울광장에서 쿼어문화축제를 단독으로 열게 됐다"며 "우리의 결집된 힘을 확인하고 그 간 받았던 울분과 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호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미국 언론사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 인터뷰

부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첫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양 대표회장은 이날 "미국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의 약 94%가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에이즈 환자 1명 치료에 한 달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이 든다. 우리 정부는 이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국내 에이즈 환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사회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확산시켜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동성애축제 장소사용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동성애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

린다면 서울시민들은 박 시장이 다시는 서울시의 행정을 맡지 못하도록, 대선의 꿈을 접도록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음란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해 표로 당선을 심판할 것입니다."

양 대표회장은 이날 박 시장이 제정한 봉은사역명에 대해서도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봉은사역명은 지상 명칭인 코엑스 사거리와 충돌하고 코엑스에 비해 인지도나 기여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대표회장의 1인 시위는 45분간 진행됐다. 집회 후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는 박원순 공직추방·퇴출,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한 1000만 법국민 서명'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사인을 했다. '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서울시청 주출입구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이었다.

중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비법인 공회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기도 21세기 찬송가를 수정하고 보완해 온전한 찬송가를 신속히 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교단장은 비법인 공회 및 교단들과 대립 중인 법인 공회는 21세기 찬송가 발행의 정동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곳에서 패반 21세기 찬송가의 사용 및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1세기 찬송가 논란 해결안 조만간 제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회견...출판권 놓고 소송 진행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와 대립하고 있는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비법인 공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찬송가(해설 및 한영판)" 출판권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달 판결과 교단장들의 결의에 따라 21세기 찬송가 문제 해결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래지 않아 가시적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 공회와 (재)대한기독교서회(서회) 및 (재)예장출판사(예장) 간 출판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다.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소송은 '해설 및 한영판'(가사 해석 부분이 있는 찬송가와 영문판 찬송가)과 '일반'(일반 찬송가)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달 상고심에서 21세기 찬송가 '해설 및 한영판'의 출판권은 서회와 예장에 있다고 판시했다. 21세기 찬송가 '일반'에 대한 2심 재판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면 조만간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비법인 공회는 이날 밝힌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교단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

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찬송가를 제작하는 것보다 교단들이 지지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 수정·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법인 공회는 당초 새로운 찬송가 제작에 대한 의지가 높았으나 성도들의 혼란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교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법인 공회가 이날 공개한 주요 교단장의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21세기 찬송가 수정·보완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 이신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백남선 예장합동 총회장, 황용대 기장 총회장은 지난달 10일 작성해 서명한 '우리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1세기 찬송가 사용 및 구매

기감 정동제일교회·예장통합 새문안교회 "아펜젤러·언더우드 꿈 함께 조명"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파송교단은 달랐지만 130년 전 한 배를 타고 조선에 왔고, 형제처럼 지내면서 협력적인 선교활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는 취지에서 '아펜젤러·언더우드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정신과 현대 한국교회의 발전 방향: 두 선교사, 하나의 꿈,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배출한 미국의 드류신학교와 뉴브리튼스워신 학교도 참여한다.

송 목사는 "두 선교사는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로 드렸으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요 12:24)"며 "한국교회사에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세계교회 발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뉴브리튼스워신학교 존 W 로클리 교수와 김진홍 교수, 드류신학교 레오나드 스위트 교수, 감리교신학대 이후정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두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도 진행된다. 두 교회는 초기 선교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자성적인 의미를 담아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될 당시 초기 형식대로 예배를 드린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드리는 폐회 예배에서는 두 선교사의 선교정신 계승과 한국교회의 자성, 통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등이 담긴 '공동기도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담임목사청빙

캔사스 시 지역에 위치한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PCUSA)는 신실하고 성심있는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자격요건

1. 목사 안수후 목회경력2년이상 되신분
2.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임이 가능 하신 분
3. 미국 장로교[Presbyterian Church(USA)] 교단에 속하거나 또는 가입 가능한 자격을 갖춘 분
4. 이중언어(영어,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1. 국, 영문 이력서(가족사진) 각1통
2. 신앙고백서 국, 영문 각 1통
3. 최근 설교 CD 또는 DVD(영어, 한국어) 각 1편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시민권 또는 영주권 또는 동등한 서류 사본 1부

• 모든 서류제출은 2015년 6월 30일로 마감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KUPCK, PNC
4849 England Street
Merriam, KS 66203

연락처

청빙 위원장 황정호 장로
913-220-7153 (jhhwang9011@yahoo.co.kr)
청빙 위원회 총무 정공수 장로
913-488-5455 (chung_kks@yahoo.com)



캔사스 한인연합장로교회
The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Kansas
4849 England Street Merriam, KS 66203

선교의 창 (32)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변혁적 패러다임

송종록 목사 (대해선교, 수필가)



오늘의 세계인구는 통상 70억으로 추산한다. 그 중 기독교인은 약 1/3인 약 23억 명이다. 이 수치는 가톨릭과 희랍교를 포함한 것이다. 23억 중 한국컴퓨터 선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51%, 희랍교 10%, 개신교 39%라고 했다. 그러므로 개신교 인구는 약 9억 명중 된다. 기독교 컨설턴트인 "프로젝트 케이"의 디크 슬리커(Dick Slikker)는 1900년부터 2010년까지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수를 조사, 비교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슷했으나 무슬림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아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1900년 34.5%에서 2010년 32.9%로 줄었다. 반면 이슬람 인구는 1900년 12.3%에서 2010년 22.5%로 증가했다. 기독교

로부터 시작한다. 그 후 19세기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이 힘을 바탕으로 여러 유럽교회들과 함께 선교를 주도했다. 그러나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피폐되었고 교회도 힘을 잃었다. 더욱이 그간 식민지로서 조차했던 아프리카와 아세아의 여러 국가가 독립을 함으로써 이전처럼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자연히 20세기는 미국이 유럽의 선교 바톤을 이어받아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1885년 피선교지였던 조선은 환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였다. 일제치하에서는 민족독립 운동에 앞장서면서 중국 상동반도에 선교사를 보냈다. 그리고 1989년 한국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정책 시행 후부터 세계선교는 들불처럼

비, 교육비, 교통비 등 생활비용은 급상승하고 있다. 이로서 자구책 차원에서 비즈니스에 손을 댄 선교사가 출현했다. 그 일환으로 Business For Mission이 나왔다. 그리고 어떤 이는 Business And Mission으로 하는 이도 있고 이제는 Business As Mission으로서 BAM Movement가 일어나고 있다. 아무튼 자비량 전문인 선교는 오늘날 또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누구나 쉽게 나갈 수 있으며 신분이나 재정적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사역적 전문성을 가진 직업 선교사는 대부분 직업적 전문성이 약하고, 선교사가 된 직업인은 사역적 전문성이 약하다. 특히 이 부류는 기관보다 독립적인 활동을 주로 하기에 통제나 관리가 어렵다.

말이 있다. 현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약5,500정도이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나 영성과 열심 그리고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커다란 자산이다. 디아스포라를 통한 복음의 확장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가 있는 것이다. 2천년 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럽까지 전파된 것 같이 이제 21세기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천국 복음이 "땅 끝"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이를 위해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가 통째로 일어서야 한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거듭나는

땅에 심기운 씨앗은 몸통이 깨져 썩어야 새 생명을 낳는다.
깃털은 바람에 나부끼며 모양만 날뿐 생산성이 없다.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몸통으로 선교할 때가 되었다.

인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이(37%) 늘었으며, 서유럽에서 가장 많이(30%) 감소했다. 인구증가와 이슬람의 성장에 비하면 기독교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유럽교회의 쇠락은 우리를 하여금 한탄을 넘어 슬프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딤후 2:4)과 모든 민족(마24:14)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교회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상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대비복을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면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왜? 교회가 선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대다수 약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저버렸거나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선교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전심으로 버거운 판에 이렇게 소수의 교회가 그것도 몸통이 아닌 깃털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제 한국교회는 저물어가는 서방교회를 답습하지 말고 존재적으로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1. 제1의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 (pradigm)
근대 개신교의 선교역사는 1792년 해안선교시대를 창안한 윌리엄 캐리 일어났다. 이에 한국교회는 준비가 부족함에도 급진적으로 선교사를 보냈고 나름대로 세계선교에 이바지했다. 이처럼 근대 이후 선교패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향식이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향식이 이다. 문화와 경제적 힘을 이용해 선교사를 타문화권으로 파송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제 서방교회가 쇠락함으로써 선교의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다. 결국 제1의 선교 패러다임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효력을 발휘하나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선교도 멈추게 된다는 한계성에 봉착하게 되었다.

2. 제2의 상황적 선교 패러다임 (pradigm)
두 번째 패러다임은 사도바울처럼 자비량 전문인 선교의 모델이다. 이는 선교지의 문이 점점 닫히고 불개가 상충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다. 보편적으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목사 선교사를 거부한다. 이러한 나라는 목회자보다는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교육, 의료 환경 개선 등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들은 환영한다. 선교사 입장에서도 환경적인 변화를 생각할 수가 없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선교비 모음이 어려워지고 후원교회의 재정상황은 녹록치 않게 되었다. 이에 반해 현지의 주백

자비량 전문인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바른 인식과 더불어 선교신학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을 잘 훈련하여 목회자 선교사처럼 동등한 자격으로 파송하고 현지에서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조직 안에서 팀워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제3의 총체적 선교 패러다임 (pradigm)
선교를 위한 제3의 길은 모든 교회가 선교적으로 성격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특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선교적 공격의 첨병위치에 있다.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국경이 무의미하다. UN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촌에 약 3억의 디아스포라 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디아스포라에 의해 탄생된 2세, 3세를 계산하지 않는 수치이다. 선교 전문가들은 1/10인 7억의 디아스포라 인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해외 한국인은 178개국에 대략 700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 4/5이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한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주의 몸된 교회가 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인이 가는 곳에는 식당이 생기고, 일본인이 가는 곳에는 회사가 생기며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맺는 말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이는 부름 받은 0.03%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99.97%의 크리스천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게 얽히 내려진 지상명령이다. 한때도 지금까지 선교는 특정 선교사와 특정 교회라는 소수에 국한되었다. 80% 다수의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망보다는 오로지 교회부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교회도 속을 들여다보면 선교가 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2000년 기독교의 선교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기독교 선교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제 종말론적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결단해야 한다.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인간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안다목교회처럼 헌신하든지? 만일 후자라면 교회는 선교적으로 Paradigm Shift를 과감히 해야 한다. 특히 5500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교회가 몸통으로 선교적 뜻을 올릴 때 성령의 놀라운 기쁨부음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 나시!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교회역사를 보면 생명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이 책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도적 교부의 삶을 살던 폴리갑은 초대 교회 성도들과 후대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우리는 폴리갑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

2)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20:17-24, 로마서 14:6-9

성도는 형용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얻었다면 이에 비금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전 과정을 통해 이뤄야 하는 신앙의 성숙은 결국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다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순교의 죽음 자체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 그렇지만 반드시 순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순교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7면에서 계속)

또한 예는 왕이 준비해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준비해준 것이 아니었다. 쫓겨난 사람은 '선한 행실'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준비해온 '선한 행실'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입으라고 주는 예복을 고집을 부리며서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왜 주를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누더기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면 예복으로 갈아입었을 것이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을 입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구태여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예복보다 더 좋은 옷이었을 수도 있다. 옷은 신분을 말해준다. 그는 일반 평민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하고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천국은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업적, 공로를 통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자리에 참석하듯 사람들처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데 '선한 행실'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자기 자신의 의의, 공로, 선행의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이다. 그랬다가 쫓겨난 것 아닌가?

이 비유에서 보면 왕이 준비해준 옷을 입은 사람들만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옷을 입어야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임해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갈3:27).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옷이 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처럼 자기 의의,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쫓겨나게 된다. 비록 남의 것보다 더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옷을 입고는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의의, 내 공로, 내 선행의 옷, 내 고백의 옷, 내 고백이 우리에게 임해주신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시라" (사61:10).
이메일: jinlee1004@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일)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말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말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일)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nachimban.org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380-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t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6:00(월-토) www.s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5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6:00(일)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p>	<p>둥둥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www.youngnak.com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24시간 경음), Fax: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p>	<p>드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www.drumschurch.org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영양예배: 오전 11:00 주말영양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6:00(일) 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p>	<p>베델인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전 7:3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일)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p>	<p>복음성광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020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Torrance, CA 90020</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일) 영양예배: 오전 11:00(월-토) 12:00(일)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gp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일)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일) www.samsungchurch.org Tel: (714)646-928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church.com Tel: (310)530-400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노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찬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찬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선교 펴기

엘살바도르

중남미 엘살바도르 뽀뜨렐리오스 산간마을에서 보내는 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사랑하시고 후원하시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 독자 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 RCA교단 위임목사 정년을 10년 앞두고 뉴욕에 소재한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직을 조기이퇴하고 선교목사로 임직 파송예배를 드린 후 회장과 이사장으로 섬기던 미동부크레기아대책기구 파송선교사로 뉴욕해 외선교회 선교사로 아내와 막내아들 폴과 함께 중남미 엘살바도르 가난한 산간마을 뽀뜨렐리오스에 도착하여 처음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현지생활과 언어습득 선교사역에 한걸음씩 적응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한 선교센터는 2년전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엘살바도르교회 노엘소사목사가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함께 예배드리는 뉴욕늘기 뽀교회(김홍석 목사)와 함께 2층을 증축하여 선교센터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천장 문 방충망 건물 안과 밖 페인트 보수공사 야외 지붕공사 교실마련 등 할일이 남아있는데 조만간 마무리공사를 하기위해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와서는 200여명 한인들이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선교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박기창 목사님과 교인들과 함께 인사하고 현지사정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예배 시 인사와 함께 복음메시지를 전하고 선교사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와성경교육 클래스를 열기

로 하였고 미동부크레기아대책기구와 협력하여 방치된 극빈가정아동들을 파악한 후 해외아동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교센터 주위 1시간권 내의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합전도사역과 연합 복음화대회

고 인사를 하며 한 성도는 저희가족을 저녁식사에 초대도 해주셨습니다.

다음주에는 한인선교사님을 통해 구입한 스페니쉬판 오늘의 만나 일일구독 성경교재 두 달분 120권을 기증하여 영의양식을 통한 신앙성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살면서



도 주관하여 후원할 계획이며 장기적 안목으로는 지역교회 젊은 청년들을 영적지도자로 양성하기위한 신학대학 분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현지교회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였는데 온 성도들이 감사하다

동네주민들과 인사하며 다니면서 느낀 점은 주민들이 온순하고 순수한 성품을 보면서 기독교 사랑의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날 영혼의 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지에 와서 뜨거운 무

더위와 모기와각종벌레들에 물리고 옛날 시골생활 같은 환경의 불편함은 있어도 부족한 종을 이선교지마을의 2000영혼을 위해 보내주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와 저희보다 더 열악한 선교지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신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4일간 저는 식욕과 기력을 잃고 아내와 아들 품은 고열과 몸살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사역도 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주님께 간절히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역하는 미샤엘 사촌인 의사를 만났는데 무더위 직사광선 수분 염분 부족 장시간산풍기노출 모기 현지 채소 바이러스 등 복합적 요인이며 풍토병에 걸린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영혼구원사역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사도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그랬듯이 복음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선교지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후방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과 재능의 후원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동안 목회현장에서 성도님들에게 무수히 강단에서 외쳤던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전과 영혼구원의 사명을 교회강단을 떠나 선교현장에 직접 와서 주민 속에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가장 작은 나라 가난한 산간마을이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내심에기에 오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 시작하는 저희가족의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부부 드림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그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밭과 집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바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리스도인과 사업가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과 큰 은혜를 받아서 따라오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였지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들거나 적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소유가 절대적으로 내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농부들이 토지를 살 때는 희년 전까지 사용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레25:15-17). 하나님만이 물질의 소유주이시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작인이요 하나님께 빌린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레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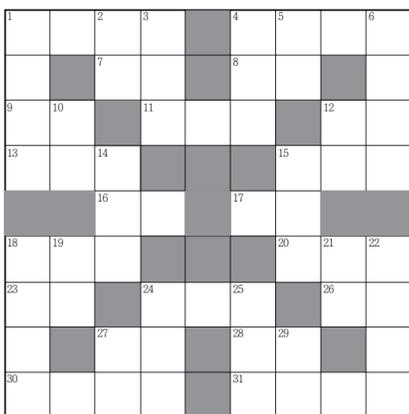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청지기적 자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의식을 한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윤을 남기는 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유과 부패한 욕심을 위해 재물과 사업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소명이 마치는 날, 이 땅을 떠날 때, 주인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인과 사업가는 재물과 자본과 모든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주인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관리되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세상적인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부지런히 이윤을 창출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최대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삼고 소명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8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0000가 되게 함 이나라(왕하19:25B)
4. 에스라 때에 유대인의 한 가족의 두령으로 저의 자손 666인이 스킴바벨을 따라 예루살렘에 귀환하였다(스2:13).
7. 아직 알지 못함(명).
8. 초목이 우거짐(창41:5).
9. 둘째 복음의 저자.
11. 율행이가 자라면?(계16:13).
12. 주로 문서를 맡아 다루는 업무(에9:3).
13. 디손의 자녀(대상1:41).
15. 화본과에 속하는 1년생 풀. 밀과 비슷하나 이삭이 난 뒤에야 구별된다(마13:25).
16.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울(왕상18:32).
17. 임신여겨 봄. 낮추어 봄(욥12:21).
18. 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께, 다른 한 마리는 000에게 드렸음(레16:10).
20. 쇠비늘과의 1년초. 여름에서 가을까지 각색 꽃이 핏(명).
23. 하늘 아래의 땅(신4:39).
24. 내소(內所)와 외소(왕상6:29).
26. 주먹 안. 수중(잠30:4).
27. 흰줄이 없애 버림(잠30:4).
28. 소리처럼 비틀리게 고랑이 진 물건(왕상6:8).
30. 네가 먹어서 0000 아름다운 집을 짓고...(신8:12).

31. 무화과로 만든 떡(대상12:40).

<세로 푸는 열쇠>

1. 두로로부터 수로로 다 행하여 0000에 이르러...(행21:7).
2. 많이 모여 쌓인 큰 덩어리(대하31:8).
3. 몸을 피고 팔 다리를 뻗는 것(암6:7).
4. 사물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시58:5).
5. 서울. 큰 도시(에9:6).
6.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나타낼 길이 없음(행24:3).
10. 블레셋의 5개 중요 도시 중의 하나. 견고한 요새지(수11:22).
12.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후에 처가 되었다(창20:2).
14. 주로 어린 학생들이 책, 학용품을 넣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명).
15. 가시로 만든 채찍(행26:14).
18. 다윗의 30용사중 엘리벨렛의 부친이다(삼하23:34).
19. 네 손가락(렘52:21).
21. 사람의 시체(왕하19:35).
22. 그림의 딱(고사성어).
24. 임금의 사유재산을 두던 곳간(스7:20).
25. 우리 나라 애국가 2절. 남산 위에 저 000.
27. 귀를 자극하여 청각을 일으키는 물리적 대상. 음(音)(렘7:34).
29. 서로 원한을 풀어 잘 지내게 함(마5:25).

십자말 정답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www.lapioneertour.com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여행상품 · 일정

- 터키/요르단/이스라엘**-12일 \$3699
*출발일: 4월4일, 18일/5월2일/9월19일/10월3일, 17일/10월31일
- 터키/그리스/이태리**-12일(13일) \$3499
*출발일: 4월5일, 11일, 25일/5월3일, 9일/5월31일/7월26일/9월20일, 27일/10월10일, 11일, 25일(13일)/11월7일, 28일
- 터키/그리스**-10일 \$2799
*출발일: 4월5일, 19일/5월3일/9월20일/10월4일, 18일/11월1일
- 터키/이스라엘**-10일 \$3199
*출발일: 4월12일, 26일/5월10일/9월11일, 25일/11월8일, 29일
- 터키/밤모/그리스**-11일 \$3299
*출발일: 4월26일/5월24일/6월28일

- 터키/그리스/이스라엘**-12일 \$3799
*출발일: 4월19일/5월17일/6월21일/7월26일/9월13일/10월11일
- 요르단/이스라엘**-9일 \$3199
*출발일: 4월6일, 20일/5월4일, 18일/6월1일/9월28일/10월12일, 26일
- 이태리(요르단)/이스라엘**-9/11일 \$4199
*출발일: 4월13일, 27일/5월11일/7월24일/9월14일/10월5일
- 체코/독일/스위스/프랑스**-10일 \$3999
*출발일: 4월13일/6월14일/9월20일/10월18일
- 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10일 \$3999
*출발일: 5월10일/8월9일

-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 비자피, 출입국세는 별도
- * 여행자 보험은 옵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전문 15년의 경력
최 최 목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언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562)403-3363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지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부동산 교회 매매

Re/Max 부동산

- 건물 12500 ft²
- 땅 24500 ft²
- 가격 3백 5십만
- 한인타운LA

솔로몬 김
213-725-9900
2백만불 정도
교회도 찾습니다

매매에 정보를 주시는 분께 응당 사례합니다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건너입)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영성가꾸기 (2)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제법 설레었습니다. 금년에는 무슨 일들을 벌일지 기대가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내심 생각하며 벽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들은 모두 반전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조금 쉬면 지친 몸이 곧 회복되리라 기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듯 육체는 고장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어디든지 사모님들이 오라고 하는 나라로 훨훨 날아가고 싶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따라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쉼을 달라도 끄떡없었던 몸도 이제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마저 가눌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자각할 때마다 이렇게 약해진 자신을 받아드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40살 독수리의 후반부 인생준비와 같은 심정 "사모들 섬기는 끈 "이름표 떼기 위해 몸부림"

니다. 애써 자신을 달래가며 올해는 안식년으로 쉬라고 하시는가보다 하며 해외사역을 모두 접기로 하였습니다.

술개의 선택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술개는 40살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산으로 높이 날아가 홀로 앉아 바위에다 자기의 주동이를 짓기까지 빠지게 합니다. 새 주둥이가 나올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후엔 그 주둥이로 자신의 깃털을 모두 뽑아 버린답니다. 손톱도 다 뽑아 버린답니다. 다시 새 깃털과 발톱이 나올 때까지 홀로 외롭게 앉아 기다린답니다. 긴 세월을 고통과 함께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깃털이 나오며 발톱도 새것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날기 시작하여 후반부의 생애를 멋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문득 술개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면서 낱아버린 나의 깃털, 주둥이 그리고 발톱 등을 모두 뽑아 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하찮은 것 같이 여겨지던 외로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여년 전에 다 겪어본 감정들이라 생각되어 잘 견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모들이 눈에 아른거려 견디기가 힘든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에너지가 바닥이 나니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외로운 농도는 점점 짙어져 가지만 합니다.

원로목사님의 심정을 새삼 알 것 같았습니다. 은퇴사역자님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됩니다. 홀로서기를 잘하는 자신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의 존재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항상 강조하며. 이렇게 사모들을 위로하고 사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역에 몰두해왔는데, 그러기에 나는 이런 부분에 도사가 된 줄 알았는데, 이런 구렁이에 빠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사모들 앞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것을 항상 격려하며 강조해 왔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역자들의 탈진 상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름을 또 다시 절실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지, 모든 가치를 사역으로 기준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자 나의 낙담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울증을 앓게 되나 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이론으로도 잘 가르칠 수 있었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는 여유있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모들 앞에서 나의 앞모습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나의 뒷모습이 여실히 드러날 때 나의 자존감도 따라서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통해 항상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였고 사역의 결과를 갖고 인격까지 평가해왔던 자신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모들의 우울증을 항상 염려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기 바쁘고 치료하느라 온 정력을 다 기울여왔던 과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을 지금은 입고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행복을 느끼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던 행복감은 아득한 과거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누구에게도 대화의 내용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고립되어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달리기 위해 술개를 목상하면서 "그래, 새 깃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홀로 산꼭대기에서 지내야 하

는 술개가 나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오는 깃털 갖고 다시 날을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꼭 돌아와" 하며 달래곤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한창 사역하다가 그만 건강을 잃어버려 죽을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절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잠된 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가 아닌가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정체가 무엇인가에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한평생을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몸도 돌아 불세 없이 열심히 뛰어오다가 정작 자신이 병에 걸리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들입니다. 참 믿음을 강조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열심히 사역할 때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며 그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자들이 자신이 정작 병에 들면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스트레스만 잔뜩 남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엘리야, 모세, 요나, 삼손 등 큰 일을 한 사역자들일수록 끝까지가는 더욱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죽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현대병으로는 심한 우울증환자들이었습니다. 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별명이라 신다고는 말하지만 막상 아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나를 절망의 늪으로 깊이 들어 가게 합니다. 와중에도 다 맘이 아팠던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사정을 그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를 이해하는 이가 한사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체질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하루를 병과 싸우기란 심한 고문의 일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루 속히 병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집념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나를 억압해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낡은 깃털과 주둥이를 몽땅 뽑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잠겨 열심히 뽑아 버릴 것들을 나열해봅니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신자의 말(약3:2)찬313장

사람의 혀가 작은 지체이나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전체의 삶을 좌우합니다. 첫째, 구원의 고백도 말로 하고 사명의 부르심도 말로 응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말로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둘째, 반대로 이 말은 불처럼 배의 키처럼 말의 입에 돌린 재갈처럼 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며, 지나친 것을 절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말은 마음 곧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말과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며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약3:2). 우리의 말로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화 거룩한 나그네의 삶(벧전1:1-12)찬405장

신자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성부의 예지하심, 성자의 피 뿌리심,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한 완벽한 구원을 내게 주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흠어진 나그네로 고생하여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1-2). 둘째, 신자의 삶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피 연구하던 성경을 삼고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10-12).

말씀 순종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아 누리려는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삽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되고 완성의 열매를 따 먹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6-7).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수 목자장을 따르라(벧전5:1-15)찬347장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4).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하여 그와의 교제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일입니다. 둘째, 그는 교만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5). 겸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셋째,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되 믿음의 터를 굳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10).

그 분에게서 긍휼, 헌성, 행동, 그리고 능력이 임하기에 그에게 달려붙읍시다. 시내가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생활이 주를 따르는 결과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그 분께로 나오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모든 방면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목 성령의 임재(벧전4:14)찬177장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환난 속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사는 지혜를 보여 주는데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긴장, 고통, 상처, 죽음의 위기가 엄습할 때 교회는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평안할 때 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순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이것은 상투적인 용어

가 아니라 시련의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로 받으면 즉, 복음 때문에 육을 당하면 반드시 영광의 영이 임하여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정말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 일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 일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하며 신앙의 차원을 높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 성경에 착념한 삶(벧후2:1-9)찬506장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자의 삶은 성경에 착념한 구원을 이룰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첫째, 확실한 예언인 성경에 무리는 신앙이 아니면 이단의 교훈과 세상 유희와 자기 속에 있는 자극적인 탐욕의 발광을 제재하지 못합니다. 그 죄는 노아시대 홍수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죄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음란한 죄와 버금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착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에 착념함이란 성

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실천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죄가 생각나 회개하고 싶어도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서원하는 기도 행이 되고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 기묘한 진리의 절경을 보고 그곳을 거니는 체험, 현실에 답답한 때에도 창조적 지혜를 알고 소망으로 넘치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주여 성경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토 타락한 심령(벧후2:22)찬337장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계를 받습니까? 첫째, 베드로는 이단 교훈으로 더러워진 교회 타락을 경계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에서 베드로 서신을 썼습니다. 여기 "참된 속담"이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상식적 교훈이 아니고 구약 압언같이 하나님 경외심에서 생긴 진리성 있는 격언을 가리킵니다. 거짓교훈은 복음이 아닌 모든 이론과 사상과 윤리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둘째, 이

기준을 벗어날 때 그는 타락한 심령을 갖습니다. 선한 양심이 약하게 되고 마침내 회인 맞은 양심처럼 되어 세상기준으로 굳어지면 그 가면에 가리워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셋째, 이를 벗어나는 길은 처음받은 복음에 착념하는 길 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등한히 여기면 멸망이 졸지에 찾아오지만 성경의 작은 가르침이라도 정직하게 응할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광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www.dendun.org Tel: (031)977-3339-9, Fax: (031)977-8382 (주)110-831-0000 서울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2-8676(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매일) Tel: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후 6:30 www.seongmun.or.kr Tel: (02)2648-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42-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문구 신사동 137 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784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감실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문구 제기동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수요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산구 월영동 415 www.yangkuk.org</p>	<p>양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인/터/뷰

해외한인장로회(KPCA) 신임 총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총회로”

지난 12일부터 3박4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해외한인장로회(KPCA)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종훈 목사...



김종훈 목사 부부

40회 총회를 1년간 이끌어갈 김종훈 목사는 '4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강조하며, 광야 40년 방향 후 약속에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형식과 제도가 교회 본질을 위협하고 전통적 가정의 가치도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기도하자

40년 광야 방향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 있기를 기도

“예수님 제일” 목회철학...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며,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때에 회복의 총회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말했다.

1. 총회장 당선 소감 총회장은 대표성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이 큰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신임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이끌어 갈 계획과 비전 저희 해외한인장로회는 21개 노회, 500개 교회에 9만 성도가 속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제40회 총회 주제를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지만 더 불안하고, 더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처에 지진, 기근, 태풍, 가뭄, 테러, 난민문제, 총기사건 등 이 시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단위인 가정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자녀가 생산되고, 이로 인해 가문이 계승되는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경건 능력을 잃어가고, 제도화가 되어가면서 형식이 복음의 생명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27장의

올라갈로 태풍을 만난 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배에는 기술을 상징하는 선장도 있었고, 돈의 힘을 상징하는 선주도 있었고, 정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난 배를 아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의 소리가 한 죄수에게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바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이 방향을 제시하는 소망의 말을 듣고 그 배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답사해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을 온전히 예측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총회로 이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 받는 총회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배는 결코 전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계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함께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건졌듯이 디아스포라로서 세계 각 처에 흩어져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가 될 때 이 총회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을 살리는 총회가 될 줄 믿습니다.

3. 평소 갖고 있는 목회철학

우리 교회(뉴욕에일장로교회) 표어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제일"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3대째입니다. 저의 조부님과 부친의 목회를 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이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해외한인장로회 제 40회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향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숫자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노회가, 총회가 방향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40회 총회장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 가족소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딸과 아들을 주셨습니다. 금년은 모두 졸업하는 해입니다. 큰 딸은 약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레지던트로 일하게 되었고, 둘째 딸은 교육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막내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총회장으로서 각 노회 순방이 많을 것 같은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문학 통해 하나님 증거하고 찬양”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크리스찬문학 제26집 출간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매년 발간하는 '크리스찬문학' 26집이 출간됐다.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문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한다. 문학은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삶과 고결한 영혼의 갈망을 추구하는 언어 예술”이라고 선언하며 ‘한국 기독교 문학의 정체성과 정통 위에 변화를 모색하여 공동의 선을 실천하는 작가들의 광장’이라고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를 소개하고 있다.

본 협회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영혼구원과 사회정화의 길잡이’, ‘인류의 평화, 자유, 행복 추구 기여’, ‘삶의 가치와 아름다운 이성 계발’, ‘투철한 신앙과 충분한 예지로 기독교 문학의 이상실현’을 위해 매년 문학지를 발행해 오고 있다.

올해 발행된 제 26집에는 곽상희 시인의 초대시를 비롯, 12시인의 시와 찬송시, 통일시 등

테마시인 9인의 작품, 18 회원의 시를 수록했다. 또한 수필부분에도 김동길, 이수복, 정목일 수필가의 초대 수필과 8명의 회원 수필을 담았고 소설부분에는 초대소설로 이동희 씨의 ‘다시 헤어짐’과 회원 김상분의 ‘부메랑’이 실렸다. 특히 2015년 신인 작품으로는 △시: 송종록 ‘새벽달’, 조애영 ‘내마음의 끝자락’ △수필: 김일형 ‘미국생활의 터전’, 조정화 ‘89센트의 가치’, △소설: (장편)이매자 ‘에밀레종’, 예정목 ‘양자의 사랑’, (단편)제봉주 ‘여행 그 이후’, 이기주 ‘겨울 나그네 찬가’가 수록됐다



“크리스찬문학” 26집 출판감사에배

“글쓰기 앞서 성령충만 위해 기도”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작가의 집에서 회원과 축하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본회 부회장 송종록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박요한 목사 기도, 윤삼혁 장로 색소폰 연주, 김기동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성령의 감동과 글쓰기’(딤후3:16-17)란 제목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재 하여 아름다운 글을 쓰도록 주장해주시 것이며 각 사람에게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어 좋은 작품을 창출하게 하시길 기도하며 글쓰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지윤 회장은 “5월의 아름다운 꽃의 향기의 계절에 함께 출판을 축하해주시는 여러



크리스찬문인협회 출판식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크리스찬문학 26집을 발간하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인사말을 통해 거듭 감사를 표했다.

한편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는 시와 소설과 단문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많은 동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5면에서 계속)

이제 사모사역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프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원고를 보지 않아도 사모들 앞에서만 하면 절로 나오는 강의를 청중을 맘대로 휘어잡는 기술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모들의 허물이나 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들은 왜 그렇게 선물을 좋아할까? 혼자서 몸으로 그렇게 많은 짐을 들고 다녀도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끼며, 더 나아가서는 선물에 대한 불만까지 얼굴에서 보여질 때 마땅히 섬겨야 할 사모들이 슬

슬 미워지기 시작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사역자가 되는가 보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지는 것이 아닌가! 꽃은 떨어지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인격에 열매가 맺히지는 것인데...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프로가 아니고 '꾼'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

오늘도 오래되고 낡아버린 것털과 주둥이를 뽑기 위해 “사모들을 섬기는 꾀”의 이름표를 떼어버리기 위해 목부림 처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5회 정기세미나

주제: “청교도와 예배”

급변하는 21세기에도 청교도가 필요한가?

무엇이든 뜯어고치는 것이 갱신일까? 청교도는,초대교회의 원리에 충실하였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을 토대로 개혁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삶을 실제로 살았던 무리이자 운동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 오히려 혼탁한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신앙의 삶의 모범이었기에 그들의 삶과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은 청교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익하다고 하겠습니까. 올해는 “청교도와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날의 이머징 예배를 지양하고 구속사적 설교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자는 발표회를 갖고자 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교회들이 성장을 외치느라 개교회주의로 흘러간혀있는 틈을 타서 WCC나 이단이 불건전한 연합을 크게 외치는 이때에 건전한 교회들의 연합이 오히려 절실합니다.

- 일시: 2015년 6월 6일(토) (10:00 AM-4:00 PM)
● 장소: (1) 예배 및 세미나: 영림교회 TEL. (718)939-8278
29-05 162 Street Flushing, NY 11358
(2) 식사 및 탐방: St. Paul's Chapel, Trinity Church/ Ground Zero/ Fraunces Tavern Museum
54 Pearl Street new york, NY 10004
● 대상: 목회자및 전도사,신학생
● 회비: \$25 (회비: 점심 및 탐방 포함), 교제비: 무료
● 일정: 10:00 AM 영림교회, 12:00PM 단체이동, 1:00 AM 점심, 2:00PM 탐방, 4:00PM 종료

Table with 2 columns: Topic and Speaker. Topics include 'Reformation and Worship', 'Martin Luther and Worship', and 'Puritanism and Worship'. Speakers include 최창섭목사, 윤성태목사, 김준희목사, and 김경옥원장.

연락처: 청교도복음연구회 홍무 이창중목사 (917) 399-6754, (718) 939-8278, (917) 251-3039, (010)2816-3475(카톡 및 보이스톡)